조사보고
집

박물관 조사보고
제17집

제주대학교박물관 조사보고 제17집

耽羅星主高鳳禮墓推定址

제주시 화북동 분묘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1997



제 주 시 · 제주대학교박물관

耽羅星主高鳳禮墓推定址
57
교박물관

사보고
집

박물관 조사보고
제17집

제주대학교박물관 조사보고 제17집

耽羅星主高鳳禮墓推定址

제주시 화북동 분묘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1997



제 주 시 · 제주대학교박물관

67
고박물관

정 오 표

페이지	줄	誤 字	正 字
17	21	광산김씨묘와	김해김씨묘와
17	22	段 모양으로	壇 모양으로
29	4	상태이나,	상태이다.
41	12	백자파편 2점과 흑상감청자 1점이 봉토내에서 확인되었으나,	봉토상면에서 백자편 2점과 봉토 내부에서 흑상감청자 1점이 확인되었으나,
63	4	A-1호분	A-2호분
63	8	A-2호분	A-1호분
64	25	A-10호분	A-1호분
77	12	태조 11년(1411년)	태종 11년(1411년)

제주대학교박물관 조사보고 제17집

耽羅星主高鳳禮墓推定址

제주시 화북동 분묘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1997

O-84
1997.5.23

제 주 시 · 제주대학교박물관



▲ A-2호분



▲ A구역 쌍분 표토 제거 후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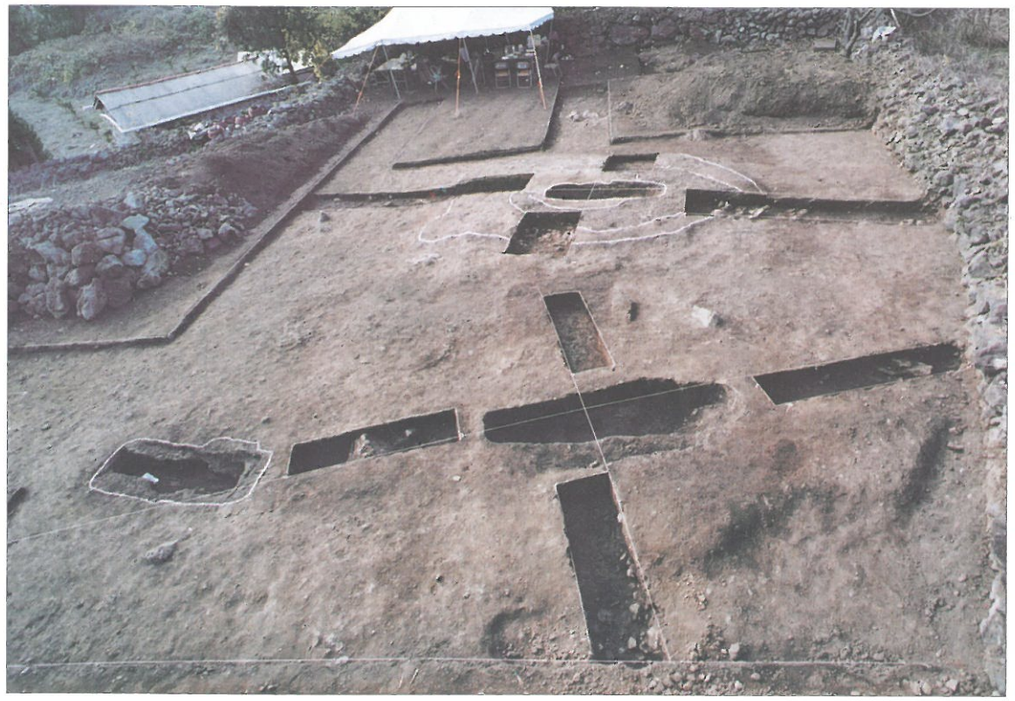
▲ A구역 쌍분 조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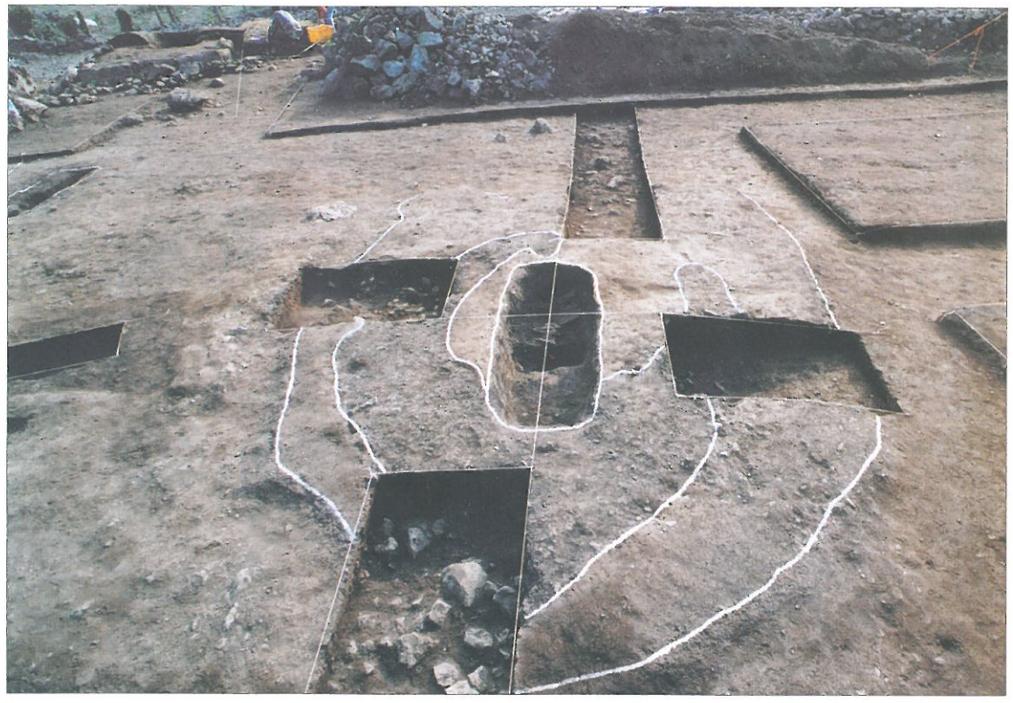
▲ A-1 · A-2호분 봉분 조사



▲ A-1 · A-2호분



▲ B구역 유구배치 상태



▲ B-1호분

발 간 사

靈山 漢拏의 맥이 흘러든 자락에 자리한 우리들의 삶터 濟州市는 오늘날 제주도의 행정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耽羅國 시대에도 으뜸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耽羅國의 實體를 뚜렷하게 찾아내지 못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만큼 '耽羅史'는 굴곡이 깊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방화 시대는 우리들의 일을 우리들 스스로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는 우리들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耽羅史는 곧 하나의 '地方史'라는 受動的인 '史觀'에서 벗어나, 主體的으로 '耽羅史'를 세워나가야 함은 우리들 앞에 놓인 엄숙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主體的으로 '耽羅史'를 세우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耽羅國史의 상징적 존재인 '星主'의 實體를 우선 실증적으로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星主의 實體가 상실된 것은 1404년(조선 태종 4) 星主·王子職이 없어지면서부터이며, 이와 동시에 耽羅國도 소멸되었습니다.

따라서 主體的인 耽羅史 定立을 위해서는 우선 口傳으로 전해 내려오던 巨老 마을의 '능동산'에 있는 탐라 마지막 星主인 高鳳禮의 墓를 발굴·조사하는 일입니다. 이는 다름 아닌 '耽羅史'의 기둥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市에서는 제주대학교 박물관에 발굴 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 墳墓의 성격, 축조 방법, 축조 시기, 출토 유물 등을 들춰내 「耽羅星主高鳳禮墓推定址」라는 이름으로 學界에 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부디 이 조사보고서가 굽어진 耽羅史를 올곧게 세우는데 자그마한 보탬이 된다면 더 이상의 바람이 없겠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발굴 조사와 보고서를 만들어주신 제주대학교 박물관장님을 비롯한 조사 발굴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7년 4월 일

제주시장 고 민 수

目　次

화 보

발간사

Ⅰ. 머리말 15

Ⅱ. 유적의 위치와 현상 17

Ⅲ. 역사적 배경 19

Ⅳ. 조사경위와 경과 23

Ⅴ. 조사내용 25

Ⅵ. 출토유물 63

Ⅶ. 고　찰 75

Ⅷ. 맺음말 77

도면 목차

도면 1 유적 위치와 주변 조선시대 유적 분포도(1/25,000) ····· 16
도면 2 유적 주변의 지명과 지형도(1/5,000) ····· 18
도면 3 등고선 측량도(1/1,200) ····· 22
도면 4 발굴 구획도(1/300) ····· 25
도면 5 전체 유구 실측도 ····· 26
도면 6 A구역 봉토 측량도 ····· 29
도면 7 A구역 1·2호분 배치도 ····· 30
도면 8 A구역 1·2호분 층위도 ····· 31
도면 9 A-1호분 실측도 ····· 32
도면10 A-2호분 실측도 ····· 42
도면11 B구역 1·2·3호분 배치도 ····· 51
도면12 B-1호분 실측도 ····· 52
도면13 B-2호분 실측도 ····· 53
도면14 B-3호분 실측도 ····· 54
도면15 출토 도자기(1) ····· 67
도면16 분묘 관련 석재 - 동자석 ····· 68
도면17 분묘 관련 석재 - 비좌·상석 ····· 69
도면18 분묘 관련 석재 일괄 ····· 70

사진 목차

사진 1 유적 원경(북에서) ····· 22
사진 2 A구역 쌍분 발굴전 현상 ····· 24
사진 3 A구역 쌍분 표토 제거후 상태(서북에서) ····· 24
사진 4 A구역 발굴 광경(북에서) ····· 33
사진 5 A구역 쌍분 봉토 일부 제거 상태(북에서) ····· 33
사진 6 전체 발굴 완료 상태(남에서) ····· 34
사진 7 A구역 쌍분 발굴 완료 상태(남에서) ····· 34
사진 8 A구역 분묘 노출 상태(북에서) ····· 35
사진 9 A구역 분묘 노출 상태(남에서) ····· 35
사진10 A-1호분 노출 상태(남에서) ····· 36
사진11 A-1호분 축조 상태(동에서) ····· 36
사진12 A-1호분 노출 상태(북에서) ····· 37
사진13 A-1호분 도굴갱 노출 상태(위에서) ····· 37
사진14 A-1호분 석곽 북벽 축조 상태(남에서) ····· 38
사진15 A-1호분 석곽 동벽 축조 상태(세부) ····· 38
사진16 A-1호분 봉토 북벽 층위 상태(남에서) ····· 39
사진17 A-1호분 유물출토 상태(세부) ····· 39
사진18 A-2호분 축조 상태(위에서) ····· 41
사진19 A-2호분 토광 노출 상태(북에서) ····· 43
사진20 A-2호분 북벽 석곽 축조 상태(북에서) ····· 43
사진21 A-2호분 서벽 석곽 축조 상태(세부) ····· 44
사진22 A-2호분 토광 노출 상태(남에서) ····· 44
사진23 A-2호분 토광 내부 도굴침 노출 상태(세부) ····· 45
사진24 A-2호분 봉토 남벽 층위 상태(북에서) ····· 45
사진25 A-2호분 봉토 북벽 층위 상태(남에서) ····· 46
사진26 A구역 쌍분 석곽 배치 상태(위에서) ····· 46
사진27 A-1·2호분 사이 토층 상태(남에서) ····· 47
사진28 A구역 쌍분 봉토 퇴적 단면 상태(남에서) ····· 47
사진29 B구역 발굴전 상태(동에서) ····· 55
사진30 B구역 유구 노출 상태(동에서) ····· 55
사진31 B구역 발굴 광경(북에서) ····· 56
사진32 B-1호분 노출 상태(북에서) ····· 56
사진33 B-1호분 토광내 개판 노출 상태(서에서) ····· 57
사진34 B-1호분 바닥면 노출 상태(북에서) ····· 57
사진35 B-1호분 봉토 층위 상태 ····· 58
사진36 B-1호분 봉토 층위 상태 ····· 58
사진37 B-1호분 봉토 단면 Pit 노출 상태 ····· 59
사진38 B-1호분 봉토 단면 Pit 노출 상태 ····· 59
사진39 B구역 유구 배치 상태(동에서) ····· 60
사진40 B-2·3호분 유구 배치 상태(북에서) ····· 60
사진41 B-2호분 노출 상태(북에서) ····· 61
사진42 B-2호분 노출 상태(남에서) ····· 61
사진43 B-3호분 노출 상태(서에서) ····· 62
사진44 B-3호분 노출 상태(동에서) ····· 62
사진45 유적 주변 석재 노출 상태 ····· 66
사진46 주변 수습 분묘 관련 석재 일괄 ····· 66
사진47 출토 도자기 ····· 71
사진48 분묘 관련 석재 - 동자석 ····· 72
사진49 분묘 관련 석재) - 비좌·상석(床石) ····· 73
사진50 분묘 관련 석재 일괄 ····· 74

Ⅰ. 머 리 말

이 분묘는 일찍부터 알려진 방형의 쌍묘이다. 쌍묘가 있는 지경을 '능동산'이라고 하고, 제주의 고위 계층의 무덤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고씨세보(高氏世譜)에 기록된 내용에 보면, 좌도지관(左都知管) 고봉례의 묘가 화북·거로 지경에 부부 합장묘로 안치했다는 내용이 있어, 이 능동산에 위치한 묘가 고봉례 부부의 묘역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朝鮮王朝實錄》 등 문헌기록에 의하면, 탐라의 마지막 성주인 고봉례(高鳳禮)의 逝去年度가 조선 태종 11년(1411)으로 나타나 있다.

30여년 전, 현장을 답사한 고봉만씨에 의하면 이 방형의 쌍묘는 日人들에 의해 처음 도굴되었고, 그 후에도 전문적인 도굴꾼에 의해 두세 번 더 도굴된 사실을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았다고 한다.

이처럼 수차례의 도굴 흔적은 조사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것도 곽의 내부는 마치 벌집을 연상케하는 도굴침 흔적이 남아 있었다. 중앙에 곽이 있었던 자리는 이미 완전하게 파헤쳐져 직경 1.5m, 깊이 1.5m 이상 되는 구덩이가 만들어져 있고 이 구덩이에서 파올린 흙이 봉토 상면을 덮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 묘는 제주도에서는 흔치 않은 방형의 묘이고, 구전과 문헌에 전하는 마지막 성주묘에 대한 史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조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중앙의 문화재위원들이 현장을 답사하게 되었고, 제주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발굴 조사를 하게 된 목적은 해당 봉분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분묘의 주인공과 그 성격을 밝혀, 그에 따른 해당 분묘의 보존 여부를 거론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발굴은 원래 9월경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겨울에 시작되었다. 이 분묘의 조사는 어떤 발굴 조사보다도 세인들의 연일 계속되는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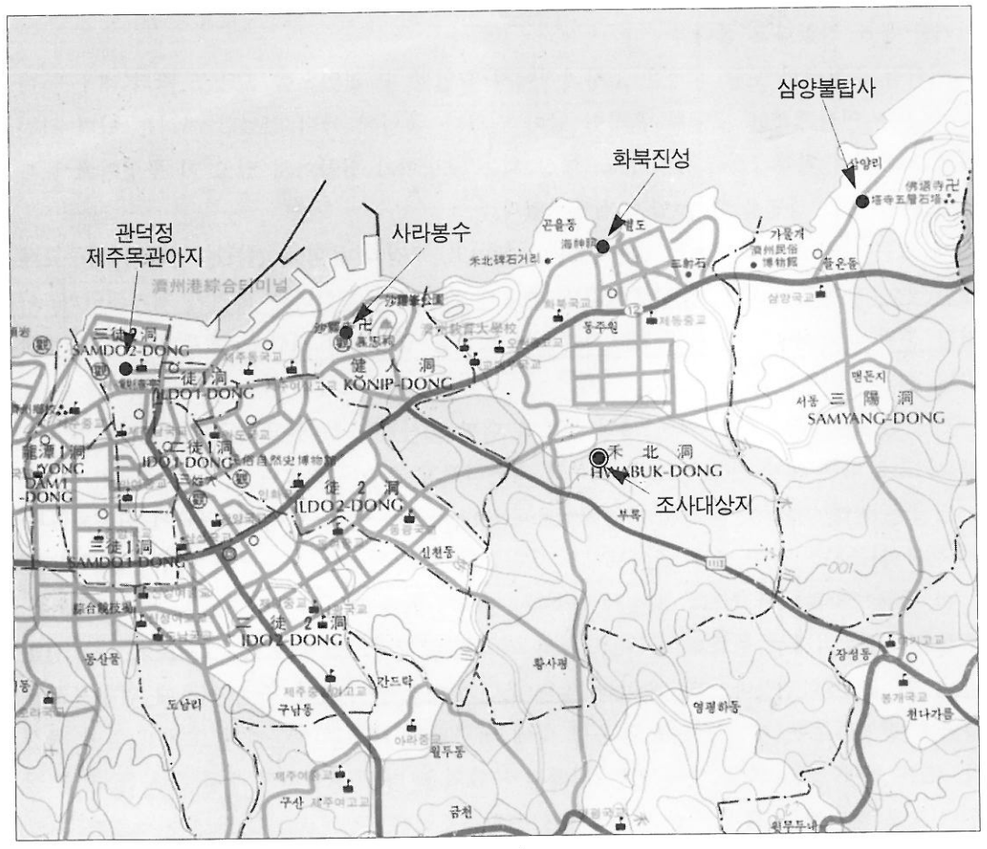
이 발굴 조사는 여러분의 도움이 있었다. 제주시청 문화예술과의 김병효 문화예술과장, 부원택 계장, 이태성 문화재 실무담당자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있었고, 高氏宗門會, 한라일보 강문규 사회부장이 연일 찾아와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었다. 특히 서울대 임효재교수, 영남대 정영화교수, 이청규교수, 김용성 학예 연구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도움 말씀이 계셨다. 또한 해당 봉분 바로 앞에 있는 김해김씨 묘역을 다소 포함시켜 발굴 조사를 진행 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同 宗門會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린다.

이 보고서는 능동산 일대에 대한 전면적인 발굴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조사 대상

지에 대한 발굴 조사 내용을 가지고 전체 성격을 거론할 수는 없다. 현재 능동산 일대에는 약 30여기의 분묘가 자리하고 있고, 이미 관리되지 않아 평삭된 분묘가 여러 곳에서 확인되었다. 그 분묘 중에는 중요한 성격을 띠는 것도 있을 것이다.

이곳에 지형·형상 변경이 있을 경우, 이번 간략 시굴조사지점을 중심으로 고려, 조선시대의 제주 분묘 연구를 위해 좀 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 조사 보고서는 문헌과 머리말은 고창석이 맡았고, 현장 조사 부분의 조사내용·유구 등은 강창화가 집필하였다. 유물은 김정선·김경주가 맡아 정리하였으며 고찰 부분은 고창석·강창화가 담당하였다. 유구도면은 이상미·고민정이, 유물 도면은 박근태·임정아·김진희·강미정에 의해 이루어 졌다. 보고서의 편집과 교정은 강창화·김경주·강동선·박근태가 하였다.



도면 1. 유적 위치와 주변 조선시대 유적 분포도(1/25,000)

Ⅱ. 유적의 위치와 현상

화북 마을은 제주시내권에 있으며 시내 중심지에서 2㎞ 남짓 동편에 위치하고 있다(도면 1). 그 중 유적이 있는 '거로마을'은 화북 2동의 남쪽에 위치한다. 이 마을에는 능동산, 절동산, 단지ᄆᆞ르, 대락, 고개ᄆᆞ를, 백미소, 소게빌레 등의 여러 지명이 확인되며 발굴지는 '능동산'이라 불리는 곳에 자리한다(도면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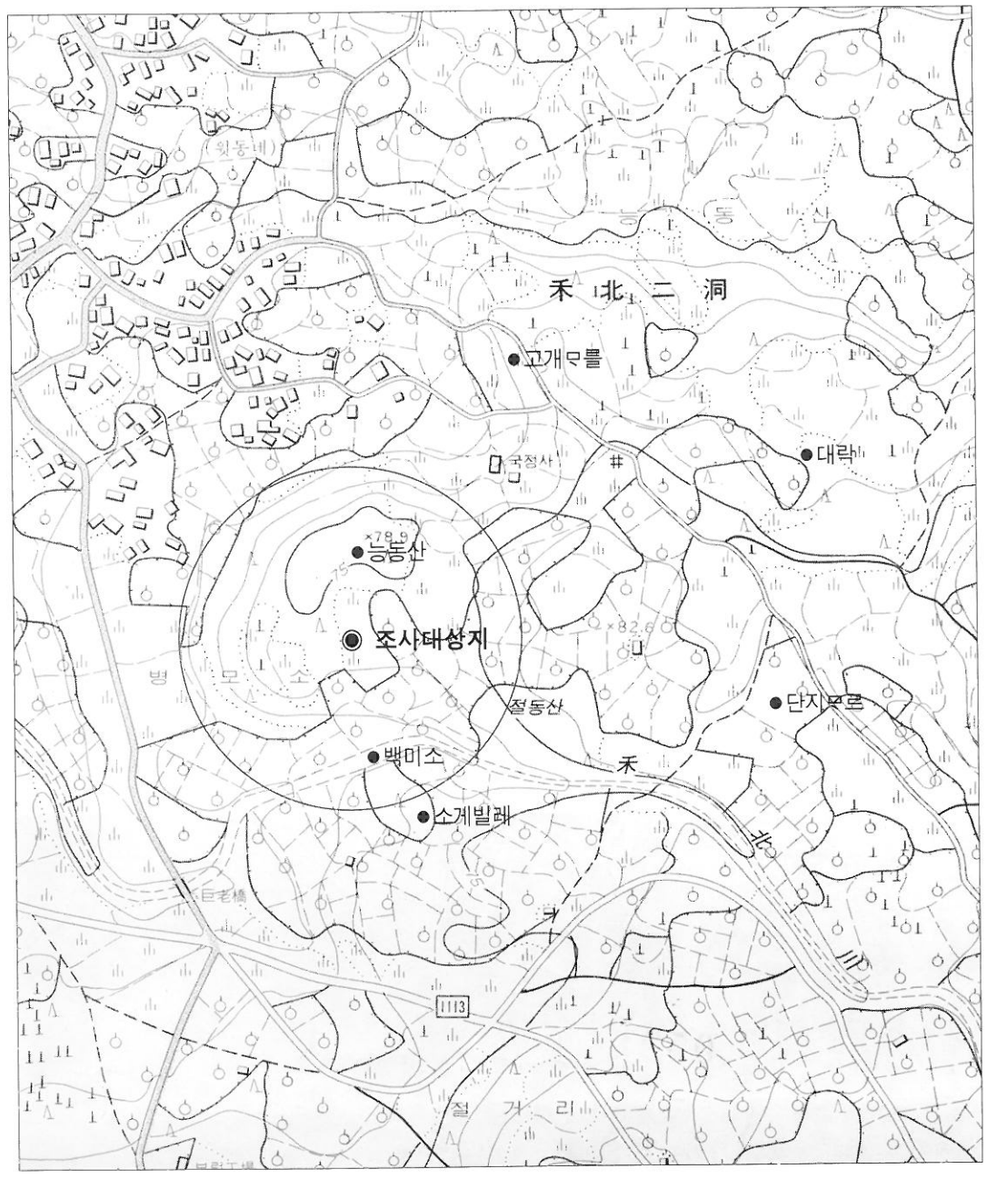
유적의 위치는 거로마을 남쪽, 해발 80~85m의 비교적 높은 능선에 자리하고 있다(도면 3). 주변에는 북동쪽으로 국청사가 자리하고 있고, 남으로 인접하여 화북천이 흐른다. 또한 1980년대에 개설된 제주~교래 간 1113번 신국도가 건천의 남쪽으로 지나가고 있다. 주변에는 현재 많은 민묘가 타원형의 능선을 따라 조성되어 있고 구릉 주변에는 야산을 정리하여 만든 밀감 과수원이 밀집되어 있다.

발굴 대상지는 화북 2동 3401, 3402번지에 있다. 조사대상 면적은 약 300여평 정도이고 발굴시 편의상 3401번지는 A구역으로, 3402번지는 B구역으로 명명하여 조사하였다(도면 3·4).

먼저 A구역은 아래 남쪽 밭과는 등고차가 3m 이상인 78m에 이르는 능선 상에 위치한다. 금번 주발굴 대상인 쌍분은 원래 분묘조성시 주변지형과 등고 차이를 고려하여 축조했던 것으로 여겨지나, 봉토 상면과 주변 묘곽 시설이 다소 변형된 상태였다. 특히 봉분의 중앙부를 장방형으로 파 들어간, 수차례의 노골적인 도굴 흔적이 확인된다. 현재 확인되는 봉분의 규모는 가로 7.2m, 세로 3.7m 정도이다. 쌍분으로 나란히 조성된 이 분묘는 언듯 보기에 주변에 석곽을 돌리고 석곽 중앙에 목관을 안치하는 '石槨木棺墓'의 형태이다. 주변 방형 석곽은 모두 치석된 판석으로 곧추 세워 돌려진 상태이다. 쌍분의 규모는 거의 동일하며 개별적인 봉토의 규모는 가로 2.9m, 세로 3.4m 정도이다. 쌍분 앞에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쯤 조성된 광산김씨묘와 장방형 돌담묘역이 조성되어 있다. 원래 윗밭(3402番地 田)과의 레벨 차가 있으며 분묘 조성시 段 모양으로 성토하여 조성되었음을 주변 측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B구역은 쌍묘 뒷편에 형성된 능선상의 밭으로, 그 면적은 250여평 정도이다. 대상지 밭은 남서로 갈수록 내려가는 지형이다. 이 밭에서 무덤 앞에 두는 소형의 童子石과 祭壇石 2기, 碑石下臺石 등 무덤 관련 석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사진 48). 특이한 것은 정면한 축대가 밭의 주변을 돌아가며 돌려져 있었는데, 축대의 단면을 보면 비교적 큰돌로 하단부를 만들었다. 현재 확인된 축담은 동북편이 휘어져 돌아가는 반원형태로 폭 1.5~2m,

높이 0.7~1.0m 정도이다. 밭의 상면은 직경 10cm 내외의 잔 자갈돌이 5~12cm 두께로 쌓여 있고, 때로 암반이 노출된 부분도 있다.



도면 2. 유적 주변의 지명과 지형도(1/5,000)

Ⅲ. 역사적 배경

1. 마을의 지명 유래[1)]

禾北洞은 행정구역상 명칭이며, 크게 이 마을은 '거로마을'·'부록마을'·'황새왓마을' 등 3개의 자연 부락으로 형성되어 있다. 예전에는 마을을 형성했던 '큰터왓(大基洞)'이 있었으나 지금은 폐허가 되었다. 고지도인『耽羅巡歷圖』에는 '夫泉'으로,「耽羅地圖」나「濟州三縣圖」에는 '夫泉里'로 표기되어 있으며,『濟州郡邑誌』에서는 '夫老洞'으로 나타나 있다.

한편 거로마을은『耽羅巡歷圖』에는 '居老'로,「耽羅地圖」나「濟州三縣圖」에는 '居老村'으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濟州三邑都摠地圖」와「濟州三邑全圖」에는 '居老村'이라 하여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 거로의 뜻은 확실하지 않으나, 어느 표기든 '거로'를 한자로 옮기는 데서 말미암은 차이로 여겨진다.

마을 위쪽에는 '별도천'과 '다옥내'가 나누어 흐르다가 '거로마을' 서쪽에 와서는 서로 합류한다. 예전에 '소림사(小林寺)'라는 절이 있었다.『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주 동쪽 10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2. 고봉례의 사적

高鳳禮는 耽羅星主 臣傑의 아들이며 耽羅國의 마지막 星主이다. 高麗末에 耽羅가 여러 번 모반하므로 이를 회유하기 위해 高麗에서는 우왕 12년(1386) 7월에 典醫副正 李行과 大護軍 陳汝義 등을 파견하여 도민을 회유·안무함과 동시에 星主族의 子弟를 중앙으로 데려다 인질로 삼고 그들의 반란을 사전에 방지하였는데, 高鳳禮가 使行을 따라 開京에 들어간 것은 그 이듬해 4월로, 軍器寺 少尹의 官爵을 받았고, 이로부터 중앙의 威令이 비로소 제주에 행해지게 되었다.

이후 그는 왕의 신임이 두텁고 후대를 받게 되어, 창왕 즉위년(1388) 9월에는 제주 畜馬겸 安撫別監에 임명되어 제주로 귀향하게 되었는데, 제주의 치안과 牧馬의 중임이 그에게 맡겨졌던 것이다.

이로부터 5년 뒤에 高麗의 社稷이 단절되고 朝鮮王朝가 개창되어 정권이 교체되었는데,

1) 제주시·제주시문화원, 1996,『제주시의 옛지명』과 제주대학교박물관, 1996,『제주시의 옛터』참조

태조 3년(1394) 7월 6일에 그는 말 100필을 헌상하여 조정으로부터 쌀 100섬을 상으로 받았다. 그는 이 무렵 아버지 臣傑로부터 星主職을 襲爵하고 있었는데, 태종 2년(1402)에는 王子 文忠世와 함께 왕에게, "星主·王子의 칭호가 분에 넘친다"고 청원하여, 星主는 左都知管, 王子는 右都知管으로 개칭하게 되었다.

그는 태종 7년(1407) 3월 3일자로 通政大夫 工曹左參議의 敎旨를 받았는가 하면, 동년 5월 8일에는 右軍同知摠制로 제수 되었으며, 동왕 10년(1410) 5월 4일에는 제주 안무사가 되어 敬差官 趙源 등과 함께 제주에 내려와 말 100필을 진상하여 宗親·大臣·近臣에게 나누어주게 하였고, 열흘 뒤에도 다시 良馬 6필을 진상하여 쌀 100섬이 상으로 하사되었는데, 이 때 제주에서 그를 수행하여 온 사람들에게도 차등 있게 쌀이 하사되었다.

태종 11년(1411) 3월 10일에는 摠制職에서 물러난 그에게 쌀 20섬이 하사되었으니, 이는 그의 국가에 대한 충의와 공훈을 못잊어 하는 왕의 情義였고, 5월 13일에는 喪配〔文氏〕를 당하게 되었는데, 왕으로부터 쌀 30석·종이 100권과 관곽이 내려지고 사신을 보내어 장례와 제향을 보살펴 치르게 하는 등 전 총제에 대한 예우가 극진하였다. 이 해 7월 6일에는 또 그에게 쌀·콩 30섬이 하사되었고, 8월 27일에는 그의 소청에 의해 제주 都州官 左都知管의 土官職이 그의 장자 尙溫에게 세습되었다.

또한 11월 19일에는 큰 구리 화로를 진상하여 쌀 20석이 하사되기도 하였으나, 동월 29일 그는 국가와 왕에 대한 충의를 다하지 못하고 별세하였다. 이에 태종은 몹시 슬퍼하여 代言에게 "이 사람이 과인을 사랑하고 사모하여 멀리 친척을 떠나 와서 벼슬하므로 내가 불쌍히 여겼는데, 지금 죽었으니 내가 몹시 슬프다. 喪葬의 諸具를 모두 부의하라."고 명을 내리고, 兩殿에서도 모두 賜祭하고 종이 150권·초 10자루·쌀과 콩 40석과 관곽을 부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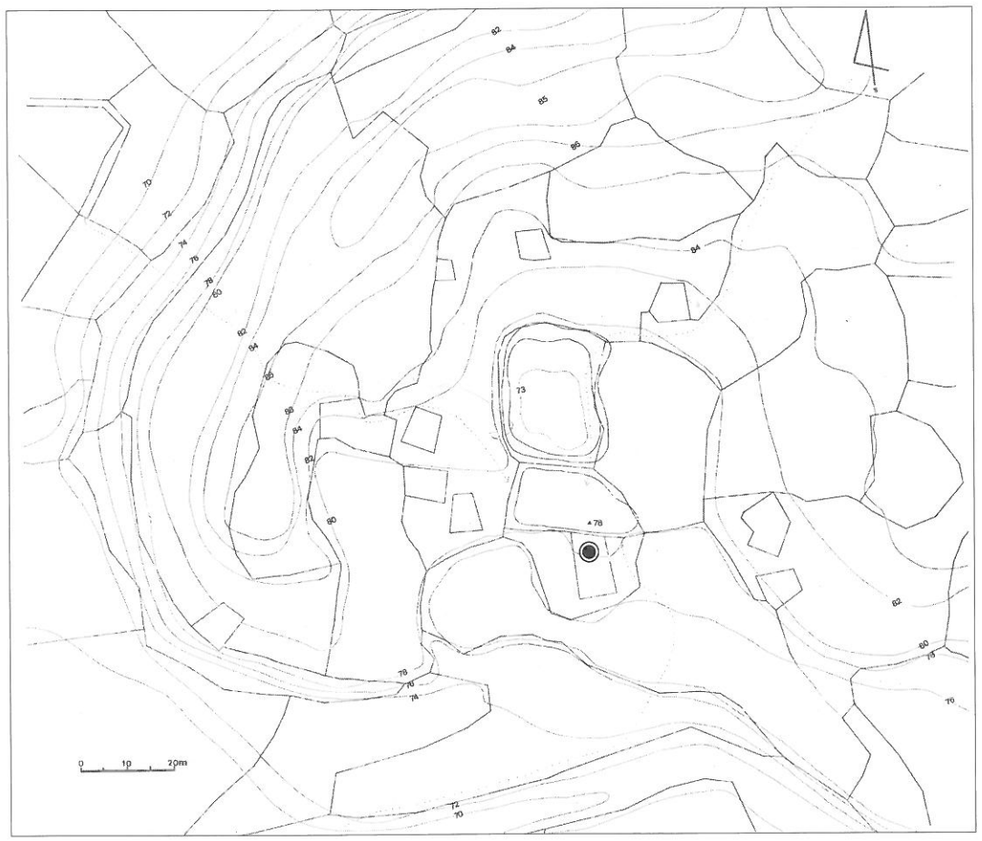
〈文獻記錄〉

- 遣典醫副正李行 大護軍陳汝義于耽羅 時朝廷欲取耽羅馬 且此島屢叛 故遣行等招誘子弟 至明年四月 行乃率星主高臣傑子鳳禮以還 耽羅歸順始此『高麗史』辛禑傳
- 太宗二年 星主高鳳禮 王子文忠世等 以星主王子之號 似涉僭擬 請改之 以星主爲左都知管 王子爲右都知管『新增東國輿地勝覽』, 濟州牧 沿革條
- 甲辰 濟州人高鳳禮等 來獻馬百匹 賜米百斛『朝鮮王朝實錄』太祖 三年七月條
- 以李貴齡爲參贊議政府事 李龜鐵知議政府事 朴子靑中軍都摠制 高鳳禮右軍同知摠制 子靑出於黃希碩之步從 以勤於營繕 遂至顯擢『朝鮮王朝實錄』太宗 七年五月條

- 庚午 分賜馬于宗親大臣及近臣 濟州安撫使高鳳禮 敬差官趙源 進馬一百匹 乃有是賜 鳳禮濟州星主之後也『朝鮮王朝實錄』十年五月條
- 高鳳禮獻良馬六匹 命依舊例賜米一百石 濟州人從鳳禮來京者 亦命賜米有差『朝鮮王朝實錄』太宗 十年五月條
- 庚午 賜前摠制高鳳禮米二十石『朝鮮王朝實錄』太宗 十一年三月條
- 賜前摠制高鳳禮妻喪 米三十石·紙百卷 且賜棺槨 遣人致奠『朝鮮王朝實錄』太宗 十一年五月條
- 乙丑 賜前摠制高鳳禮米豆三十石『朝鮮王朝實錄』太宗 十一年七月條
- 命濟州人高尙溫襲世職 前摠制高鳳禮上言 濟州都州官左都知〈管〉臣之世職也 乞代以長子尙溫 從之『朝鮮王朝實錄』太宗 十一年八月條
- 賜前摠制高鳳禮米二十石 鳳禮進大銅𤭢『朝鮮王朝實錄』太宗 十一年十一月條
- 丙戌 前摠制高鳳禮卒 鳳禮濟州人也 上悼甚 命代言曰 此人愛慕寡人 遠離親戚而來仕甚可憐也 今其亡也 予甚哀之 喪葬之具 其悉賻恤 兩殿皆賜祭賻紙百五十卷·燭十丁·米豆四十石及棺槨『朝鮮王朝實錄』太宗 十一年十二月條

〈族譜記錄〉

- 『戊寅譜』(1938)
  墓在濟州島東門外禾北里巨老境能童山南邊壬坐方雙坐
- 『濟州高氏大同譜典書公派扁』卷之一(1975)
  墓, 濟州市巨老境陵童山南邊壬坐 配郡夫人南平文氏 墓, 雙封



도면 3. 등고선 측량도(1/1,200) ◉ 조사대상지



사진 1. 유적 원경

Ⅳ. 조사 경위와 경과

1. 조사 경위 · 조사단 구성

조사는 제주대학교 박물관에서 맡아 진행하였다. 분묘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이미 도굴되어 있었으며 문화층이 깊지 않아 수습 조사 차원에서 조사되었다. 따라서 조사비용도 토지 보상과 인근 묘역에 대한 보상비를 제외하면 600만원(보고서포함) 남짓 되는 예산으로 진행하였다. 조사에 직접 참여한 조사단과 도움을 준 분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단장은 高昌錫教授(제주대학교 박물관장 · 역사학)가 맡아, 현장에 연일 참가하였고 주관하였다. 조사원으로 高光敏 學藝硏究士(제주대박물관 · 민속학), 康昌和 濟州大講師(제주대박물관 · 고고학), 朴景弘(제주대박물관 · 행정담당)이 참여하였다. 보조원으로는 金慶柱(영남대 대학원 석사과정). 李尙美(영남대 대학원 석사과정), 高旻庭(경북대 대학원 석사과정), 김종찬(제주대 사학과 졸업생), 박근태(제주대 사학과생) 등이 현장에서 발굴작업에 참여하였다.

또한 李淸圭教授(영남대 문화인류학과)는 몇 차례 현장에 와서 분묘의 성격을 논의하는 정성을 보여 주었다.

2. 조사 경과 · 조사 일지

1996년 9월 초가을, 현장을 답사하여 심하게 도굴된 현장을 보고 이에 대한 시급한 발굴조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11월과 12월에 재차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조사는 12월 초순부터 시작하여 12월 하순에 끝을 맺었다. 구체적인 발굴 일정은 다음과 같다.

1996년 12월 5일에서 6일간은 봉토 주변과 '능동산' 일대에 대한 지형 측량을 실시하였고, 유적 중심부에 기준점과 해발고도를 78.00m로 설정하여 모든 조사 Level을 맞췄다. 12월 12일까지는 B구역에 대한 Trench 굴착 작업을 실시하였다. 본격적인 유구 확인 작업에서 3기의 민묘 掘壙線을 잡을 수 있었는데, B-1호분과 B-2호분의 봉토 흔적을 미미하게 나마 잡을 수 있었다.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는 A구역의 봉토 측량과 봉분 상부에 대한 삭토 · 굴착 작업을 실시하였다. 발굴은 사분법을 준용하였으나 이미 상당량의 상부 봉토가 도굴과정에서 유실되어 있어 정확한 봉토의 층위 조사는 사실상 어려웠다. 18일에서 24일까지는 전체 구역에 대한 확장 발굴과 함께 A구역 쌍묘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24일부터 26일까지는 A·B구역 전체 유구에 대한 평면 실측 작업과 레벨 작업을 실시하여 도면을 완성하였다. 12월 27일과 28일에는 미진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12월 29일, 장비를 점검하고 현장을 철수하였다.



사진 2. A구역 쌍분 발굴전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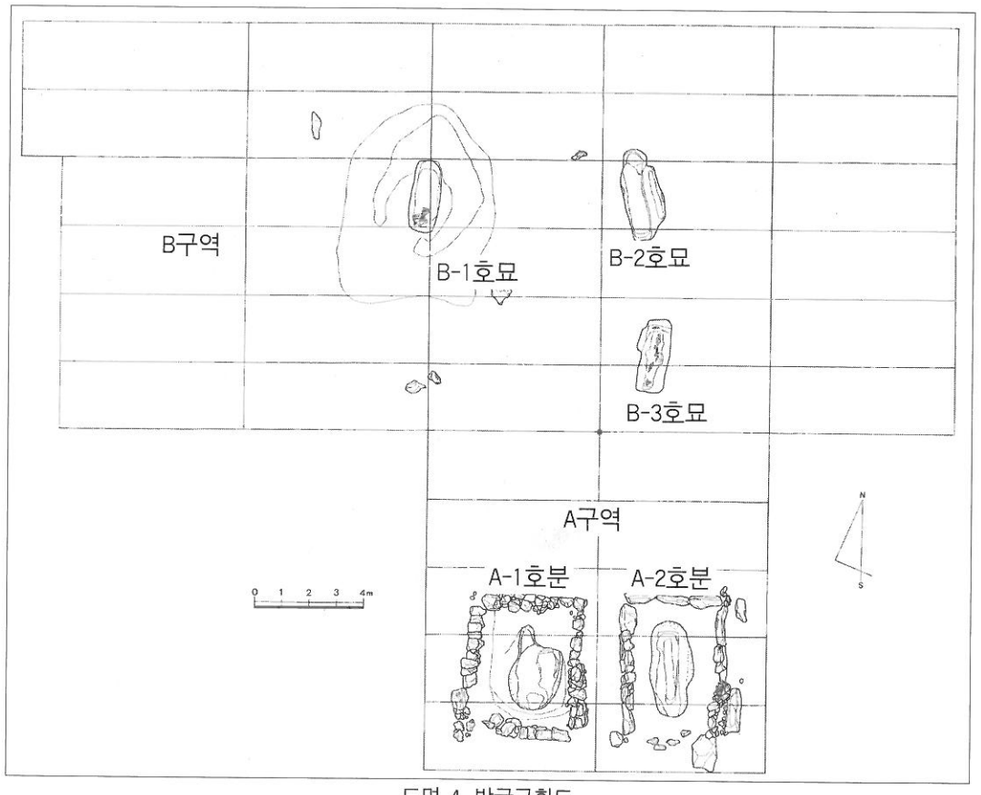


사진 3. A구역 쌍분 표토 제거 후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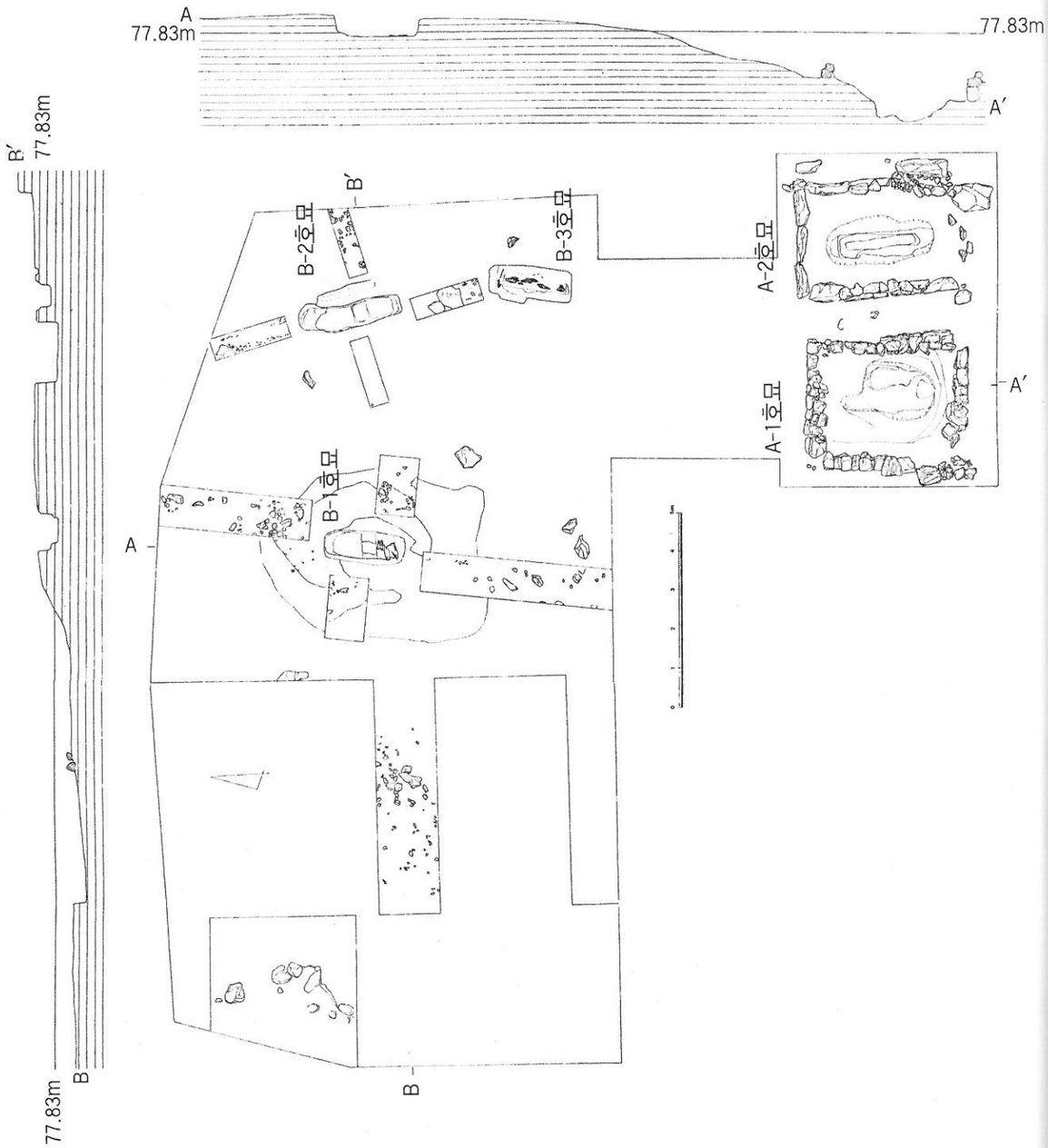
V. 조사 내용

1. 조사 방법과 진행 개요

발굴지 전체의 구획은 格子法(Grid－method)을 전제로 하였으며 각 구역에 맞게 적절한 발굴법을 적용하였다(도면 4). A구역에 대한 봉토 조사는 四分法(quadrant－method)을 원칙으로 발굴하였다. 그러나 현 봉토가 도굴로 인해 교란 상태가 심하여 10cm 단위로 토층을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하면서 굴착 작업에 임했다. B구역에 대한 조사는 탐색줄구덩이(Test－trench)로 봉토 유구를 잡고, 전체 분묘 유구를 노출시킨 후 봉토 및 유구 절개 작업을 실시하여 그 축조 방법을 확인하였다.



도면 4. 발굴구획도



도면 5. 전체 유구 실측도

2. 유 구

A구역에서는 쌍분으로 이루어진 방형 석곽분 2기가 확인되었고, B구역에서는 부부묘역인 民墓 2기와 移葬墓 1기가 확인되었다(도면 5).

가. A구역

해발 78m 능선 앞자락에 나란히 잇대어 2기의 봉분이 자리하고 있다. 서편 봉분을 A-1호분, 동편 봉분을 A-2호분으로 명명하였다(도면 7).

이들 2기의 쌍분은 원래 지형에다 2m이상 인위적으로 황갈색 점토를 가지고 축단(築壇)을 만들고 일정 묘역을 조영하였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봉토 층위 조사 과정에서 서쪽의 A-1호분이 A-2호분보다 이른 시기에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A-1·2호분의 축조 순서는 중간 토층에서 잘 나타난다(도면 8, 사진 27).

남아 있는 A-1호분과 2호분 석곽 사이 층위 상황을 보면, 흑갈색 부식토층이 표토층(표토 아래 9cm, 두께 4cm)이 남아 있었는데, 무덤이 조성된 후에 퇴적된 층으로 맨 상면에 해당된다. 그 아래로 황갈색 점토층(표토 아래 41cm, 두께 34cm)으로 단단하게 다져 있었는데 이 층위는 동쪽 묘역의 성토층과 동일하며 동편으로 갈수록 두텁게 경사져 내려간다. 이러한 점토층 아래로는 자갈이 함유된 흑갈색 부식토층(표토 아래 42㎝, 두께 25㎝)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서편 봉분의 성토층과 같다. 이 층위는 점토층보다 매우 단단하게 다져 있을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자연석이 섞여 있다. 그 밑으로 적갈색 생토암반층이 이어진다.

1층인 황갈색 점토는 A-2호분의 성토층이고 2층인 흑갈색층은 A-1호분의 성토층으로 조사되었다. 즉 이러한 층위 상황은 A-1호분이 이른 시기에 만들어졌음을 알게 한다.

1) A-1호분

A-1호분은 다음의 A-2호분과 서쪽으로 1m의 간격을 두고 나란히 연접하여 축조되어 있었다(도면 9, 사진 10~12).

가) 봉토 및 내부 층위

봉토 대부분이 삭토되고 도굴에 의해서 내부 성토가 상면을 덮고 있었다. 토층이 잘 남아 있는 부분의 층위를 보면, 맨 상층인 표토층은 흑갈색 부식토층으로 그 깊이는 25㎝에 이르며 두께는 20~30㎝ 정도이다. 이 층위는 봉토 축조 후 쌓인 층으로 분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층위이다. 그 아래층은 갈색 점질토층(Ⅰ층)으로서 그 깊이가 72㎝에 이르며 두께는 27~42㎝ 정도이다. 이 층은 잔자갈이 일부 포함된 층이며, 아래쪽(남쪽)으로 갈수록 두께가 점점 얇아지고 있다. 제Ⅱ층은 흑갈색 점토층으로 상층보다 점성이 강하다. 이 층위는 지표 아래 120㎝까지 이르며, 그 두께는 52~70㎝이다. 다음 층은 황색 점토층(Ⅲ층)으로 생토층을 파 들어가 인위적으로 다져 성토한 층이다. 소토(燒土)가 함유된 고운 입자의 점토로 구성되어 있다. 이 층은 표토 아래 160㎝에 이르며 그 두께는 52~57㎝정도이다. 이 층 밑으로 황갈색 생토층이 이어진다(도면 8, 사진 16).

층위를 요약해 보면 봉토의 성토층은 갈색 점질토층과 황색 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갈색 점질토층은 봉토의 주된 층위이고 황색 점토층은 토광시설을 만들기 위한 기초 성토층이다.

나) 외부 석곽

이 분묘는 방형석곽묘이다. 남북의 길이가 동서 석곽보다 긴 사각 형태이나, 크게는 방형을 유지하고 있다. 외부석곽은 일단 일정 높이로 점토단을 만든 다음에 토광을 만들고 시신을 안장한 후에, 그 주변을 돌로 둘러 축조하였다. 외부석곽의 장축 방향은 N5°W이며, 석곽의 크기는 장축길이 420㎝, 단축길이 335㎝이다.

석곽은 크고 작은 판석과 할석, 그리고 자연석을 혼용하여 가로쌓기와 세로쌓기로 축조하였다. 석재의 치석 상태나 석곽의 축조 상태를 볼 때 외벽 부분은 서로 맞물려 정교하게 축조된 반면 내벽은 매우 엉성하다. 다시 말해 내부 토광을 보호하기 위한 석축이 아니라 봉분의 경계를 짓고 봉토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A-1호분은 A-2호분이 대형 판석(板石) 1매를 사용하여 연이어 축조하는 방식과는 달리 네벽 모두가 2~5단으로 축조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벽석은 한 면만을 치석한 할석과 자연석을 사용하여 축조하였으며 동쪽 벽석의 일부는 A-2호분과 같은 대형 판석을 일부 사용하여 축조하였다. 남쪽 벽석은 일부가 유실되었다(도면 9, 사진 14 · 15).

다) 내부 토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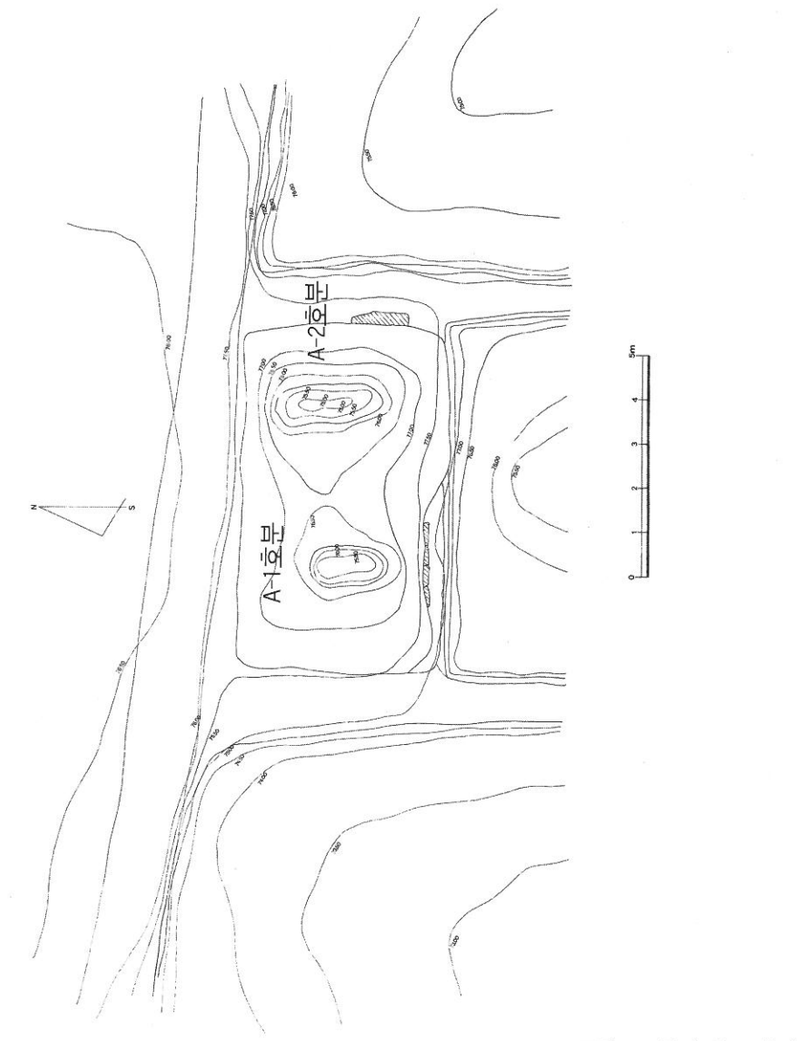
석곽의 내부는 목관을 안치하기 위한 토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심하게 도굴되어 있어서 시신을 안치했던 확실한 토광선을 잡을 수가 없었다. 이 토광을 완전히 파들어가 내부 토광을 완전히 파괴시킨 도굴갱은 190×145×150cm 정도의 타원형을 취하고 있다(도면 9, 사진 13).

다만, 추정되는 토광의 규모는 장축 162㎝, 단축 40~42㎝, 깊이 95~97㎝이다. 미미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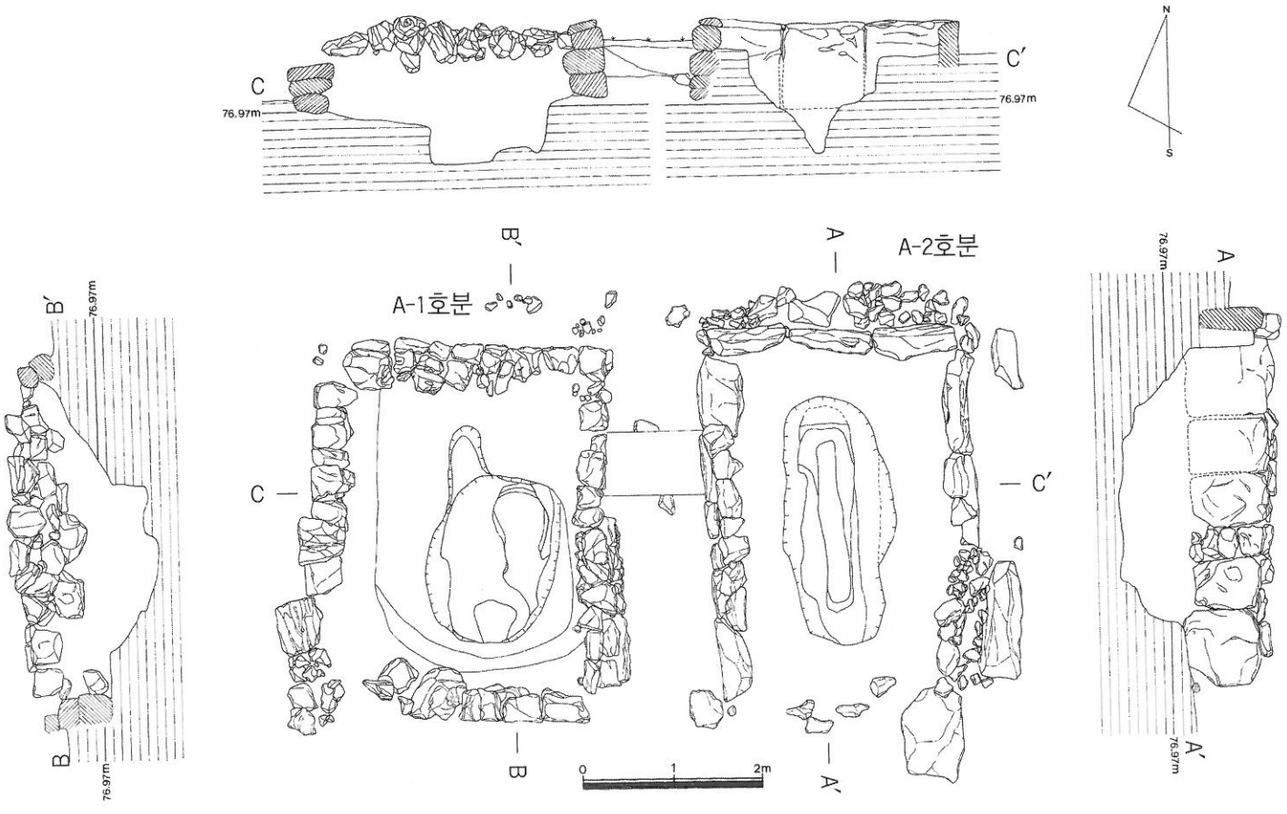
시신이 안치된 부분은 석곽과 동일 방향인 남북향으로 판단된다.

라) 출토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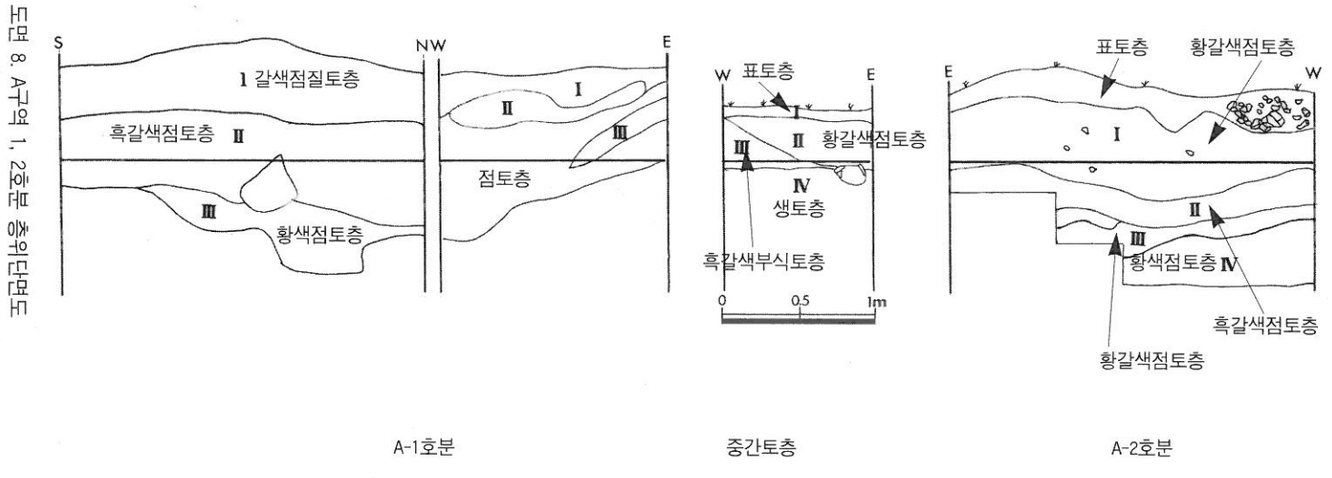
남쪽 도굴갱 상면에서 백자대접편 1점이 확인되었으나(도면 15, 사진 47), 이미 도굴이 심하여 토광 내부가 상당히 파괴되어 있는 상태이나, 목관이 안치되었다는 증거, 즉 관정이나 목질이 확인되지 않는다.



도면 6. A구역 봉토 측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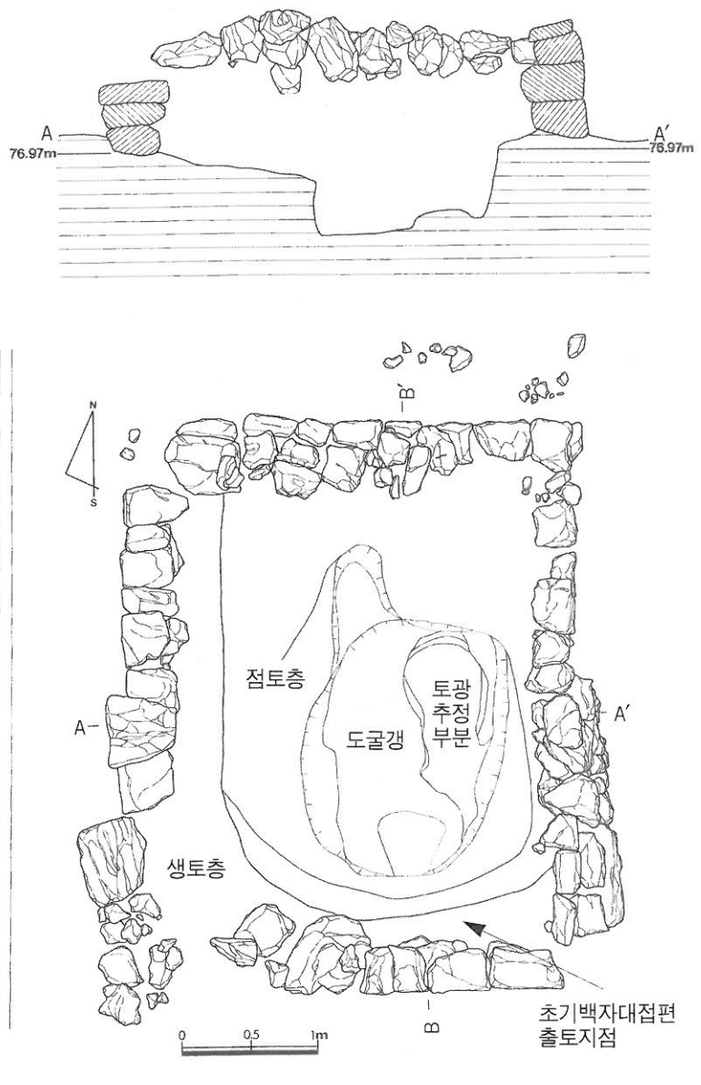


도면 7. A구역 1, 2호분 배치도



A-1호분 중간토층 A-2호분

도면 8. A구역 1, 2호분 층위단면도



도면 9. A-1호분 실측도



사진 4. A구역 발굴 광경



사진 5. A구역 쌍분 봉토 일부 제거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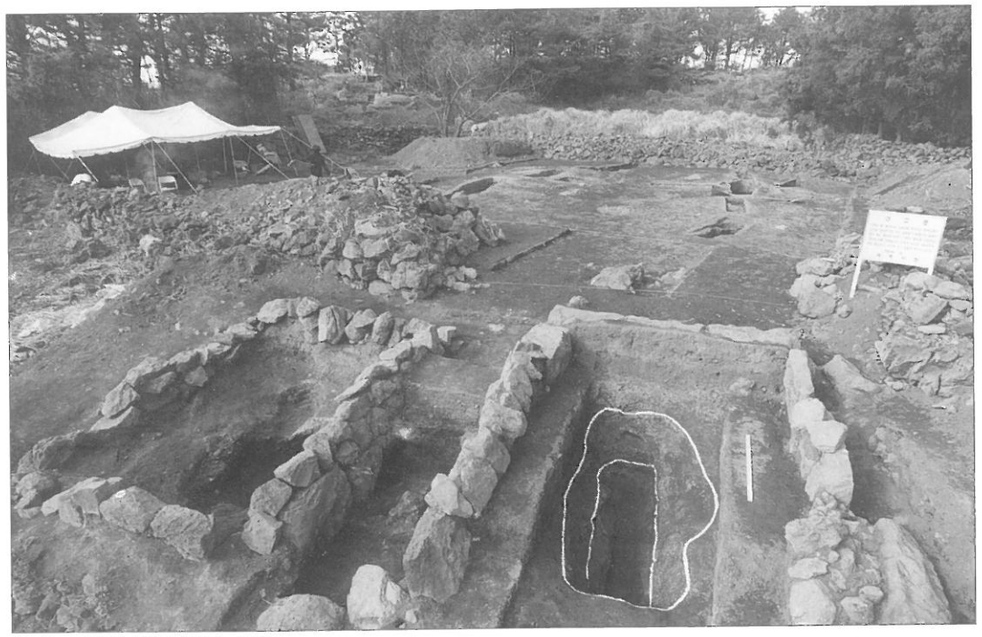


사진 6. 전체 발굴 완료 상태



사진 7. A구역 쌍분 발굴 완료 상태



사진 8. A구역 분묘 노출 상태



사진 9. A구역 분묘 노출 상태



사진 10. A-1호분 노출 상태



사진 11. A-1호분 축조 상태



사진 12. A-1호분 노출 상태



사진 13. A-1호분 도굴갱 노출 상태



사진14. A-1호분 석곽 북벽 축조 상태



사진15. A-1호분 석곽 동벽 축조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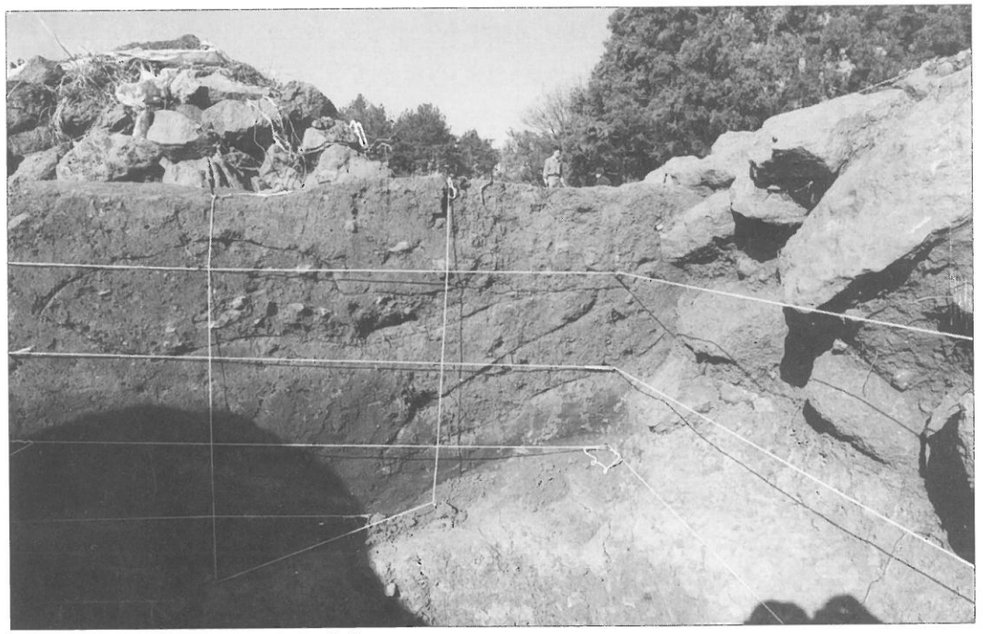


사진 16. A-1호분 봉토 북벽 층위 상태



사진 17. A-1호분 유물 출토 상태

2) A-2호분

가) 봉토 및 내부 층위

전반적인 층위 상황은 A-1호분보다 복잡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층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도면 8, 사진 24·25·28). 표토층은 흑갈색 토층으로 전체 층위에서 봉분을 이루고 있는 제일 윗층이다. 이 층은 표토 아래 27cm, 두께는 14~27cm이며, 남서쪽에 자갈층이 있다. 다음 층인 Ⅰ층은 황갈색 점토층으로 이 층 또한 봉분을 이루고 있는 층으로 간간이 잔 자갈들이 포함되어 있다. 점성은 표토층보다 고우며 단단한 층이다. 석곽을 안치한 자리이다. 표토 아래 73cm, 두께는 37~59cm이다. 아래층인 Ⅱ층은 흑갈색 점토층으로 1층에 비해서 점성이 조금 떨어지고 잔자갈들이 섞여 있다. 표토 아래 91cm, 두께는 15~22cm이다. 이 다음 층(Ⅲ층)은 황갈색 점토층으로, 이 점토층 바로 밑으로 목탄흔이 보이며 잔 자갈이 섞여 있다. 이 층은 서벽으로 이어져 오다가 사라진다. 표토 아래 114cm, 두께는 6~23cm이다. 다음층은 잘 다져진 황색 점토층(Ⅳ층)이 이어진다. 이 층위 밑으로, 황갈색 생토층이 확인된다.

나) 외부석곽

A-1호분과 90cm 내외의 간격으로 바로 동쪽에 축조되어 있다. 방형의 석곽묘로 석곽의 장축은 N5°W이다. 석곽의 크기는 416×310cm이다. 석곽은 직경 90cm, 폭 30~35cm 정도의 대형 판석과 직경 30cm 미만의 할석을 사용하여 축조하였는데, 동·북·서벽은 대형 판석을 가지고 세워쌓기 방식으로 축조했고, 판석과 판석 사이의 공간에는 크고 작은 할석과 자연석을 이용하여 채워 넣었다. 이 판석 상면에는 봉토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작은 자연석 안으로 경사지게 세워쌓기로 축조하였으나 대부분 유실되어 서쪽 부분만이 남아있다. 반면에 남쪽 벽석은 이미 대부분 유실되어 있어 할석과 자연석 일부만이 남아 있으나 다른 벽석과 비교해 볼 때, 남쪽 벽도 대형 판석과 할석 등을 사용하여 축조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분묘는 석곽의 내부가 엉성하게 맞추어진 반면, 외부벽석은 작은 석재를 끼워가면서 정교하게 축조되어 있다(도면 10, 사진 20·21·26·27).

다) 내부토광

석곽의 내부에는 타원형태의 도굴갱이 확인되는데, 그 크기는 장축 266cm, 단축 152cm, 깊이 160cm의 크기이다. 세밀하게 조사한 내부 조사에서 일차적으로 파 들어간 장방형의 토광선을 잡을 수 있었다. 이 토광선의 크기는 장축 235cm, 단축 60~65cm, 깊이 30~37cm이

다(도면 10, 사진 19·22). 이 토광의 장축방향은 N20°W로 석곽의 장축 방향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다시 이 토광을 파고 들어간 최종 토광이 확인되는 이 토광의 바닥은 단단히 다져져 있었다. 시신을 안치하기 위한 토광으로 판단되는데, 특이한 점은 세장된 형태라는 것이다. 세장된 이 토광의 크기는 장축 187cm, 단축 25cm, 깊이 60cm이다. 전체적으로 토광의 깊이는 95~97cm로 매우 깊게 묻는 深葬을 취하고 있다. 이 토광의 벽면에서는 도굴침 구멍이 마치 벌집처럼 뚫려 있어 이미 심하게 도굴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사진 23). 목질·관정 등 목관 사용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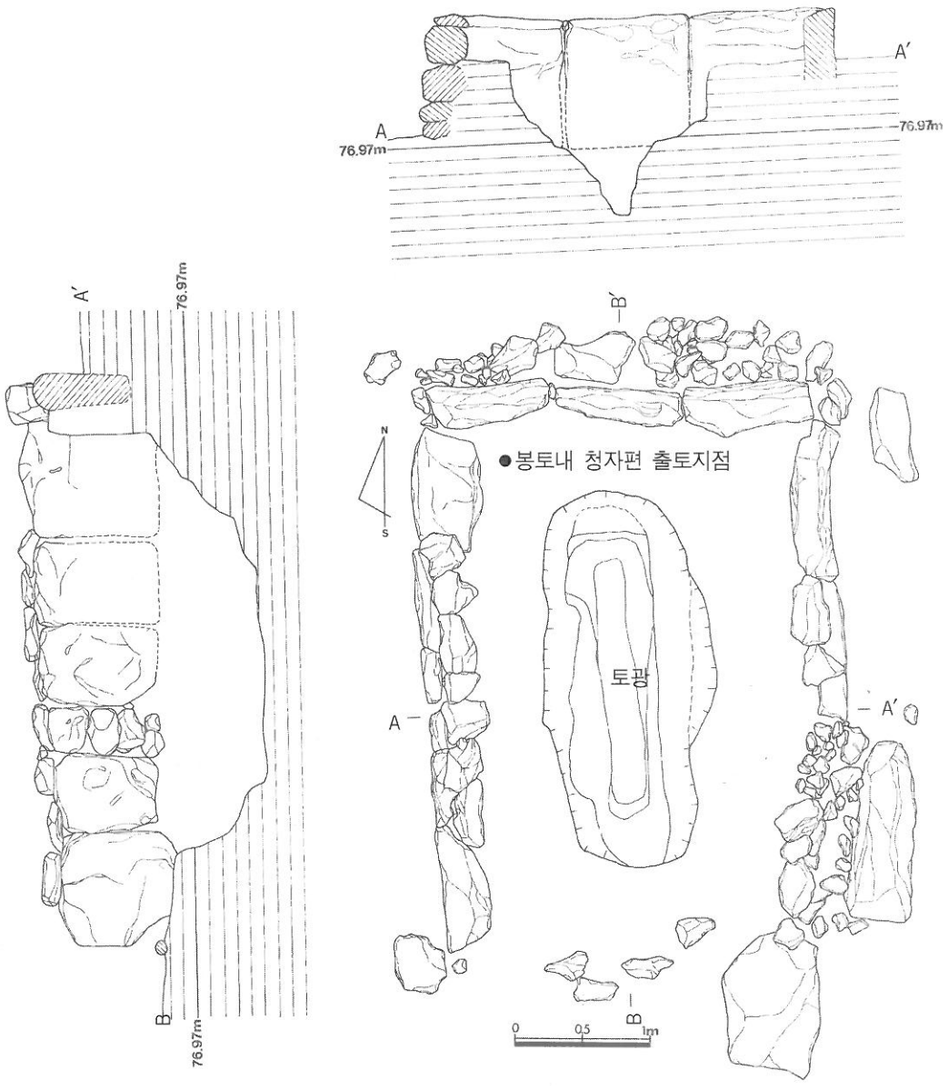
이 묘는 이 봉토의 층위 상태와 하단 토광 축조 방법을 고려해 볼 때 상당량의 인력을 동원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석형 석곽의 축조는 A-1호분보다 정교하고, 봉토 층위에서 보듯이 후대에 만들어 졌고, 쌍분으로 조영된 점이 특이하다.

라) 출토 유물

백자파편 2점과 흑상감청자 1점이 봉토내에서 확인되었으나, 광 내부에서 원상의 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도면 15, 사진 47).



사진 18. A-2호분 축조 상태



도면 10. A-2호분 유물 출토 상태



사진 19. A-2호분 토광 노출 상태



사진 20. A-2호분 북벽 석곽 축조 상태



사진 21. A-2호분 서벽 석곽 축조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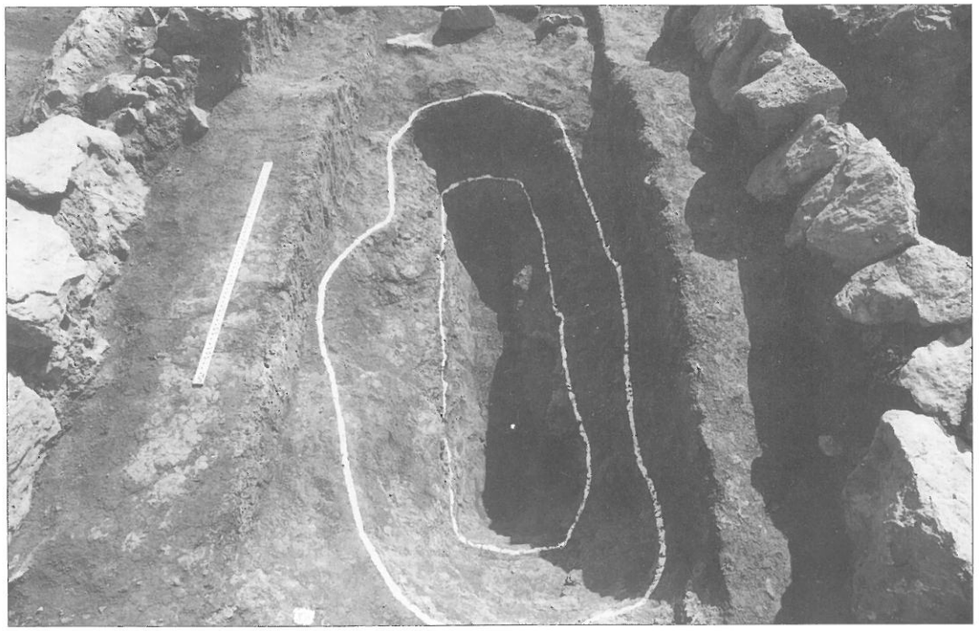


사진 22. A-2호분 토광 노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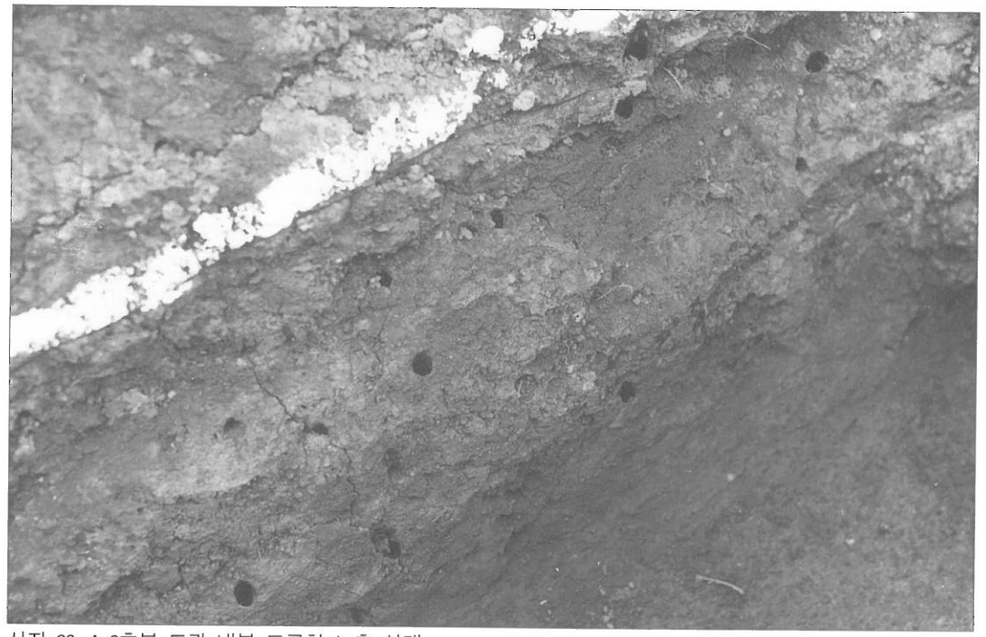


사진 23. A-2호분 토광 내부 도굴침 노출 상태



사진 24. A-2호분 봉토 남벽 층위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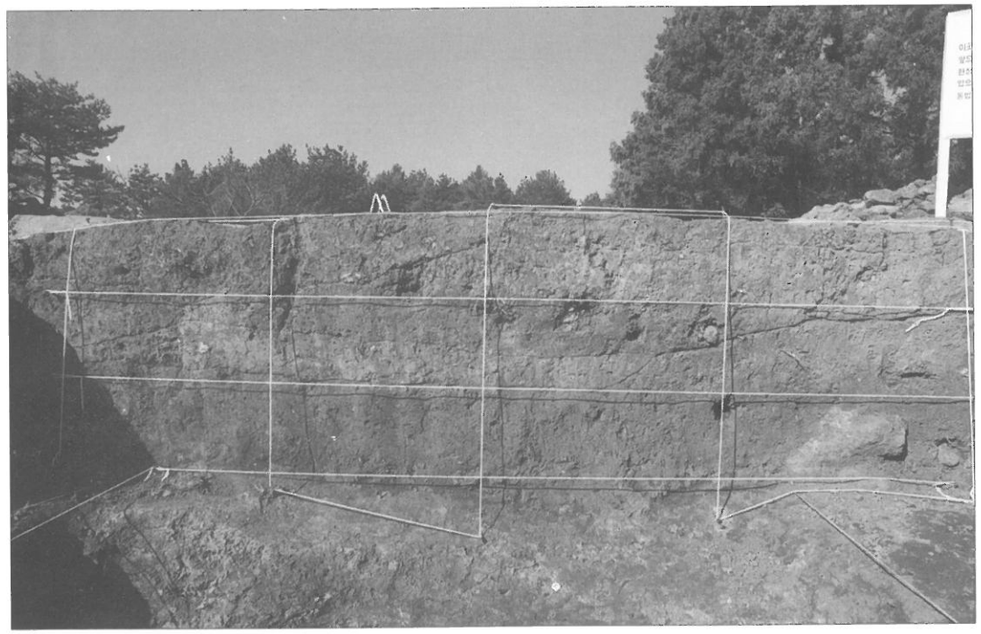


사진 25. A-2호분 봉토 북벽 층위 상태



사진 26. A구역 쌍분 석곽 배치 상태



사진 27. A-1, 2호분 사이 토층 상태



사진 28. A구역 쌍분 봉토 퇴적 단면 상태

2. B구역

1) B-1호분

동 분묘는 서쪽에 있는 B-2호분과 토광 간의 거리는 5.4m이나, 원래의 봉토는 거의 붙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3402번지 밭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무덤의 자리한 위치나 공간상의 배치로 보아, 이 밭에 있는 3기의 발굴 민묘 중 제일 먼저 만들어진 묘로 여겨진다(도면 11, 사진 29·30·31·32·44).

가) 봉토 및 층위

남아 있는 봉토 부분과 내부 토층의 절개 작업을 통해 각 부분의 층위 상황을 확인하였다. 각 부분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일괄적으로 묶어 전체적인 층위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맨 상층부인 표토층은 흑갈색 부식토층으로 표토 아래 10~12cm, 두께는 7~10cm 정도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밭 경작지층으로 볼 수 있다. 층위 내부에 제단석[床石]이 놓여 있었다. 이 밑으로 점성이 매우 고운 황색 점토층(Ⅰ층)이 이어지는데 표토 아래 15cm, 두께는 25~32cm정도이다. 이 층위는 본격적인 성토층으로 흑갈색층과 암반층이 확연히 구별되어 둥근 타원형꼴로 확인되었다. 이 층은 봉토층으로 봉분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식별되는 층의 분포범위는 동서 4.4m, 남북 8.2m이다. 그런데 이 층위에 분포하는 타원형 봉토 중앙에는 토광이 시설되어 있는데, 잔자갈이 포함된 갈색 부식토층(Ⅱ층)이 토광을 동·서·북으로 에워싸고, 남쪽은 트여 있는 형상을 보이고 있다. 얼핏 보기에, 풍수지리적인 명당 그림과 같이 나타났다. 안에서 부분적으로 둥근 띠층으로 그려지는 이 토층의 두께는 12~18cm 정도이다. 앞서 황색점토층 밑으로 황색점토층과 부식토층이 각 벽의 다른 양상 속에서 번갈아 쌓여 있다. 그리고 그 밑으로 황갈색 생토암반층이 이어진다. 표토에서 생토까지 제일 깊은 곳이 0.8m 정도이다(도면 12, 사진 35~38).

나) 내부 토광

생토암반층이 지표와 가까워 토광을 설치할 경우 암반을 깨고 시설하는 어려움이 있어, 앞서 토층 내용에서 보이는 것처럼 일정량 점토를 가지고 봉토를 올리고 난후 이 점토층 내부에 토광을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토광은 정확한 장방형으로 시신의 머리를 북향에 둔, 그 장축 방향은 N3°E이다. 토광의 크기는 장축 208cm, 단축 80cm, 깊이 60cm이다. 토광의 남쪽 내부에서 덮개[蓋板]로 추정되는 목재가 일부 잔존하고 있었다. 이 덮개용 목재는 황갈색 점토층 위에 놓여 있었다. 토광의 맨 밑바닥은 4~5cm정도의 고운 재가 잘 다

져진 채 수평 레벨로 깔려 있었다(도면 12, 사진 33·34).

다) 출토 유물

곽 내부의 유물은 후대에 휩쓸려 들어간 백자 저부편이 보이며 상부에서 분청사기 대접 구연부편이 1점 확인되었다(도면 15, 사진 47). 그러나 관정 등 목관을 안치했다는 확연한 증거는 없었다. 반면 다른 이유로서, 이미 이장된 묘인 점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증거가 포착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2) B-2호분

동 분묘는 B-1호분의 동편에 위치하며 토광과는 5.4m 떨어져 있고, 원래의 봉토 부분은 거의 붙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전체적으로는 B-1호분의 공간상의 배치·층위 상황으로 볼 때, 이들 두 개의 분묘는 연관된 묘역 내의 부부묘일 가능성이 높다(도면 13, 사진 39).

가) 봉토 및 내부층위

남아 있는 B-2호분의 각 벽의 층위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표토층 양상은 앞서 B-1호분과 같다. 표토층 밑으로 황색 점토층(Ⅰ층)이 1호분과 거의 같으나, 점성이 매우 고른 편으로 일부 수비질(水飛質)한 점토도 확인된다. 단면 절개 작업을 통해 서쪽 성토 부분이 매우 두텁게 나타나, 그 두께가 90~100cm 이상 되며 이 부분에 한해 막바로 생토암반층과 연결된다. 나머지 동·남·북쪽의 성토는 갈색 부식토층(Ⅱ층)이 점토층 밑으로 확인되며, 다시 그 밑으로 황갈색 생토암반층이 확인된다. 인위적인 봉토층으로 여겨지는 점토층의 범위로 봉토 규모를 파악할 수 있었던 앞서 1호분과는 달리, 이 봉분은 부분적으로 확인되어 그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다만 현재 남아 있는 성토층의 상태로 보아 봉분의 형태는 타원형으로 짐작되며, 그 규모는 1호분 보다는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도면 13, 사진 40).

나) 내부 토광

앞서 1호분의 축조방법과 동일하게 점토를 사용하여 토광을 만들고 있다. 즉, 생토암반층이 지표와 가까워 토광을 시설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정량의 점토를 가지고 봉토를 올리고 난후 이 점토층 내부에 토광을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토광은 시신의 머

리를 북향에 둔 장방형으로, 이 토광의 장축방향은 N5°E이다. 토광의 내부에는 별다른 시설이나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다. 토광의 북쪽 머리부분이 파괴되어 있으나 그 바닥부분이 남아 있고 밑에 깔린 재(灰)층이 잘 남아있어 그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동 분묘의 토광의 규모는 장축 240㎝, 단축 62㎝, 깊이 48㎝이다. 토광의 맨 밑바닥은 4~5㎝ 정도의 고운 재가 잘 다져진 채로 수평 레벨로 깔려 있었다. 토광의 서쪽분에서 길이 142㎝, 폭 20㎝, 깊이 15㎝ 미만의 작은 토광이 확인되었다. 이 토광은 파다 만 흔적이 뚜렷한데, 아마도 후대에 묘자리 토광을 파다가 장소가 협소하였거나, 기존에 이장된 토광이 있어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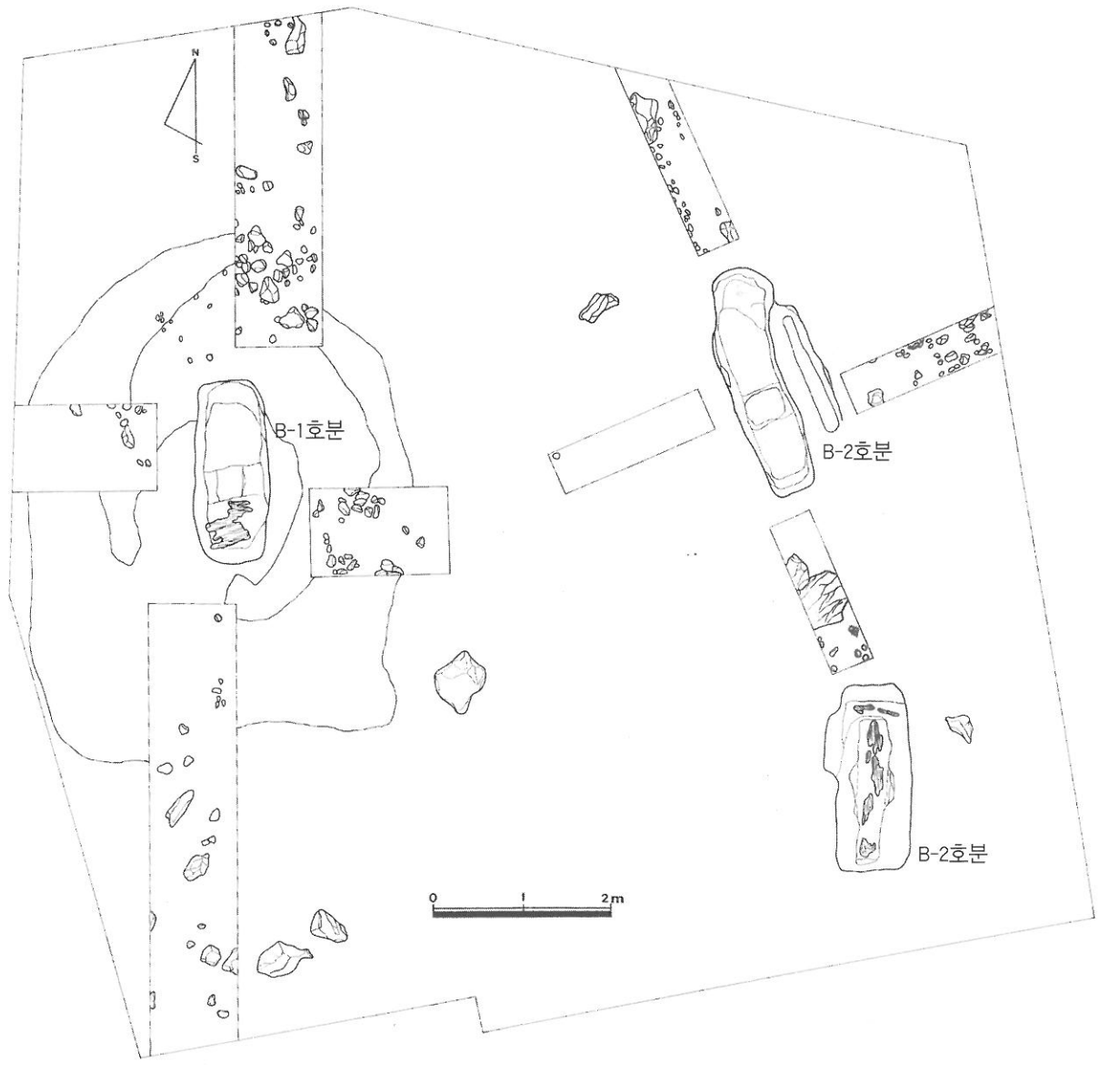
다) 출토 유물

곽 내부의 유물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봉토 상부에서 백자편이 2점 확인되었다. 북편 표토에서 「亭」銘 백자 저부편이 수습되었다(도면 15, 사진 47). 관정 등 목관을 안치했다는 증거는 확인 할 수 없었으나, A-1호분과 동일 시기에 이미 이장된 묘인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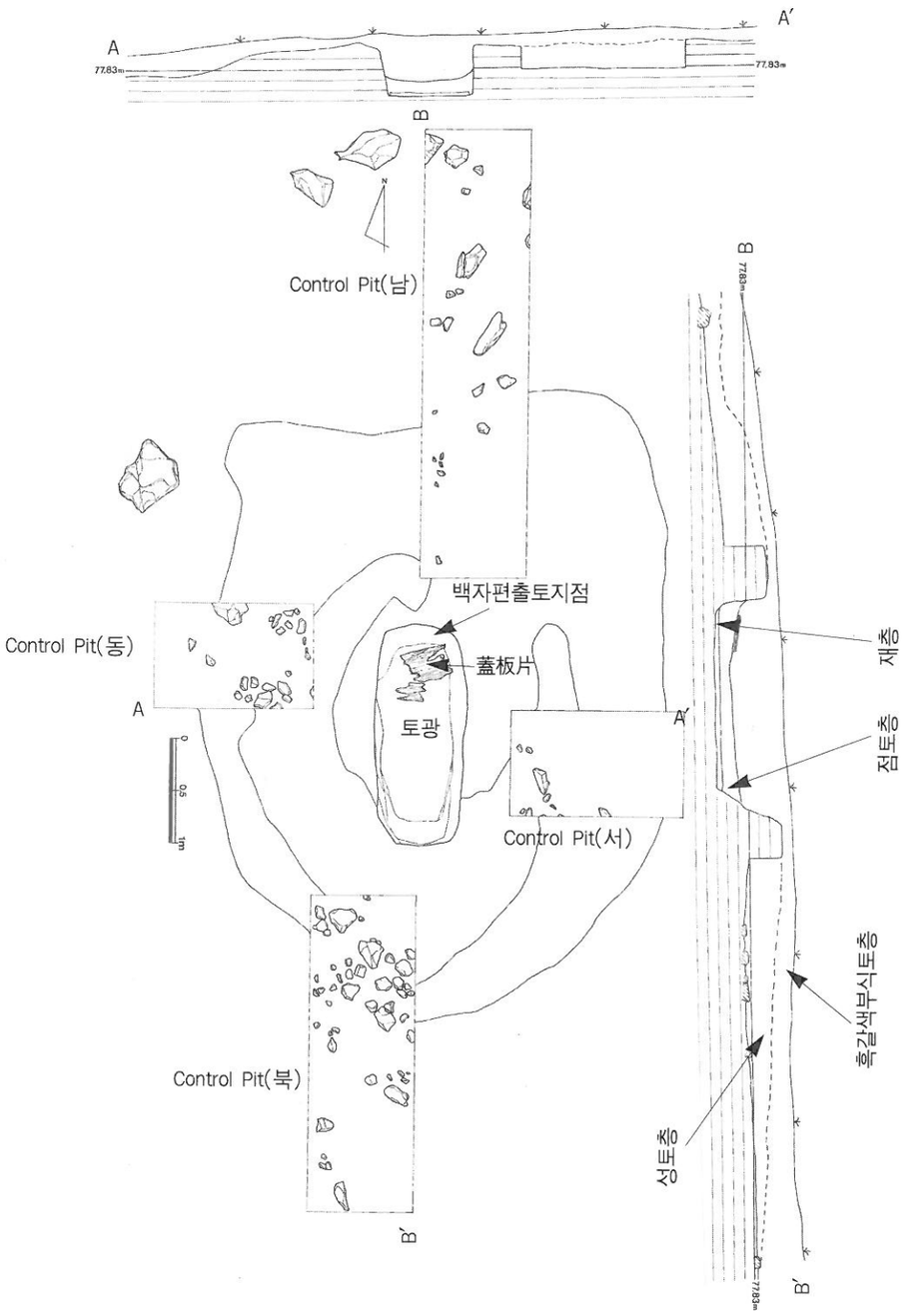
3) B-3호분

남아 있는 B-2호분의 봉토 남쪽 2.7m 지점에 위치한다(도면 14, 사진 43). 2호분의 황색 점토층(Ⅰ층)내에 잇대어 시설되어 있어, 토광 역시 이 점토층 부분을 파고 들어가 만들었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묘임을 알 수 있다. 토광은 장방형으로 시신의 머리를 정확하게 북향에 둔, 그 장축방향은 정남북이다. 바닥 부분은 평평하게 다져 시설하였다. 토광의 규모는 장축 210㎝, 단축 82㎝, 깊이 35㎝이다. 바닥과 상부에 나무관이 일부 남아 있어 이 토광 내부에 목관을 안치한 흔적이 뚜렷하다(도면 14, 사진 44). 목관이 안치된 광의 크기는 160×30×25㎝이다. 이 무덤은 먼저 남북이 긴 장방형의 광을 파고 세장된 목관을 안치한 후, 토광과 목관 사이에는 흑갈색 사질점토를 다져 넣어 '충진토'의 역할을 하게 한 점이 보인다. 폭 39㎝ 미만의 세장된 토광의 형태는 이 묘가 다른 장소에서 이 곳으로 이장될 때 추려진 시신을 안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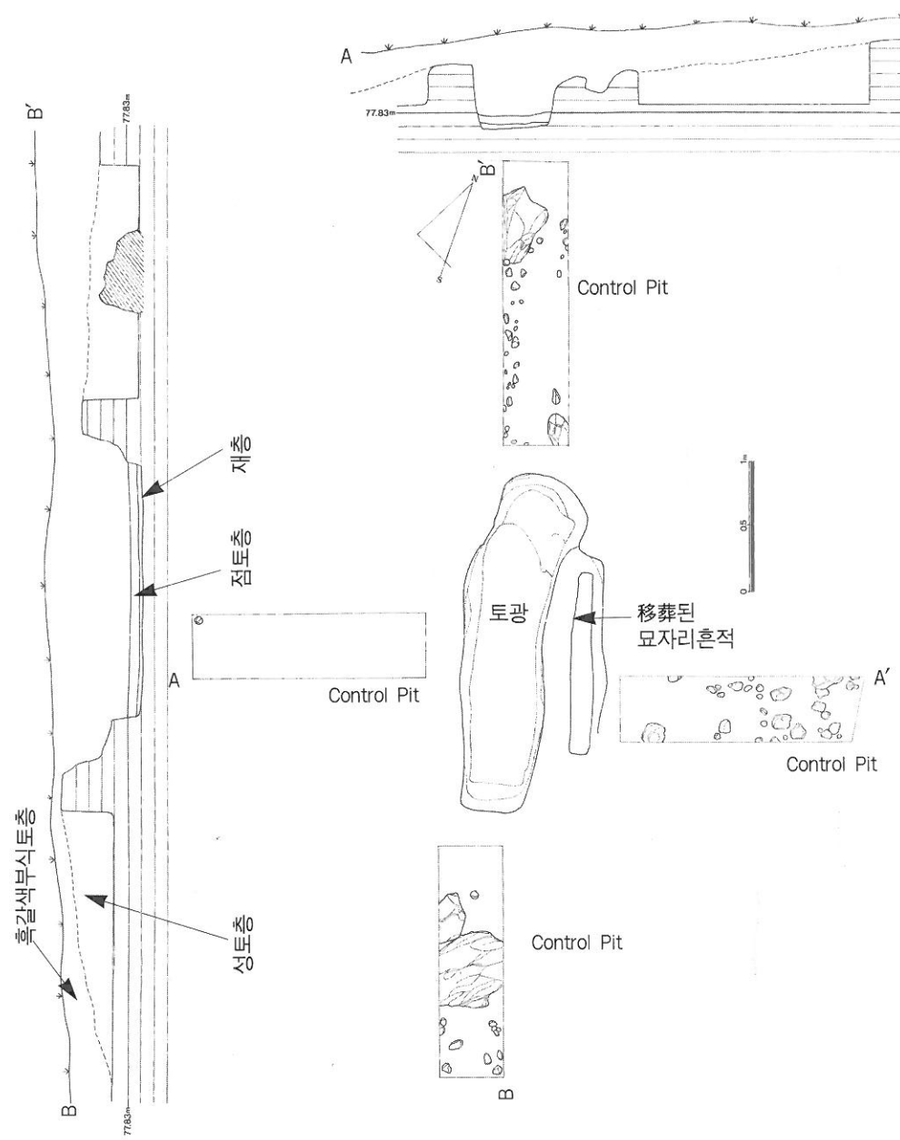
곽 내부의 유물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봉토 상부에서 백자편이 2점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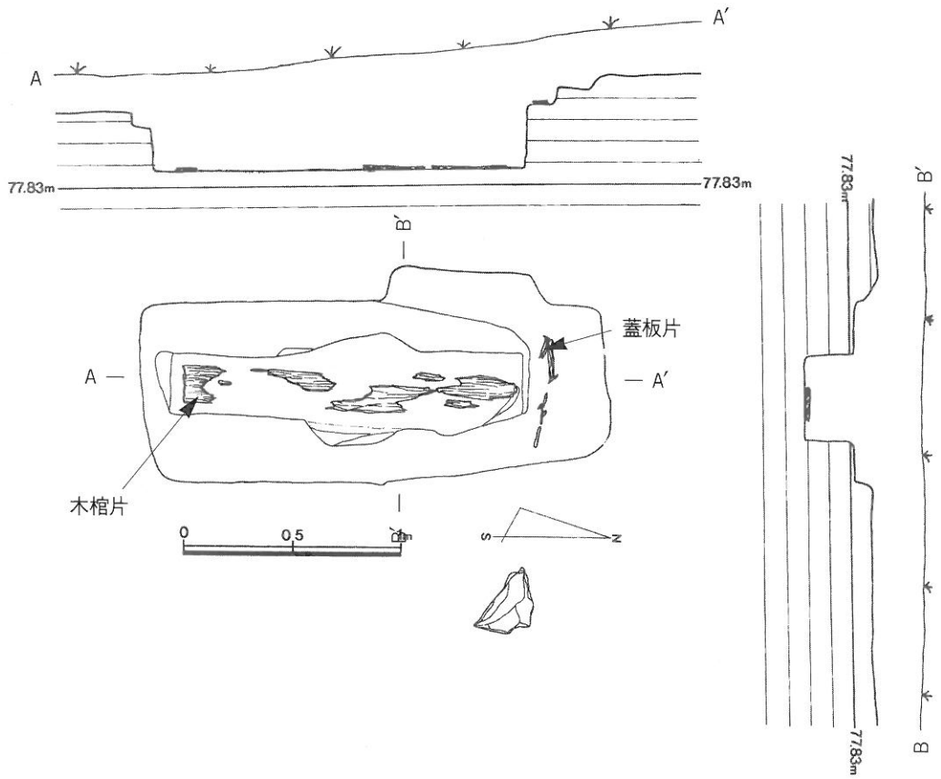
도면 11. B구역 1·2·3호분 배치도



도면 12. B-1호분 실측도



도면 13. B-2호분 실측도



도면 14. B-3호분 실측도



사진 29. B구역 발굴 전 상태



사진 30. B구역 유구 노출 상태



사진 31. B구역 발굴 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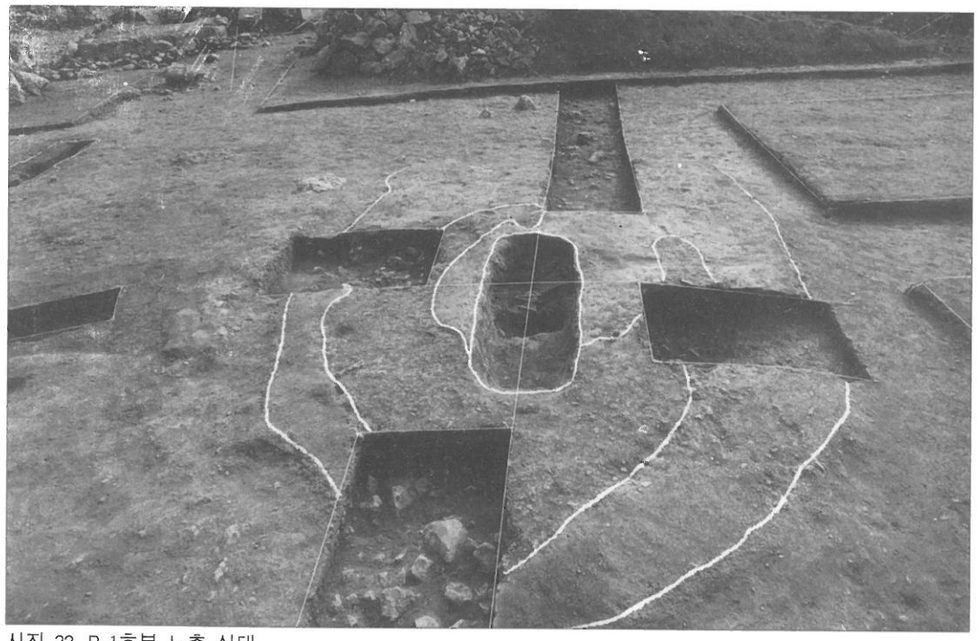


사진 32. B-1호분 노출 상태



사진 33. B-1호분 토광내 개판 노출 상태



사진 34. B-1호분 바닥면 노출 상태



사진 35. B-1호분 봉토 층위 상태



사진 36. B-1호분 봉토 층위 상태



사진 37. B-1호분 봉토 단면 Pit 노출 상태



사진 38. B-1호분 봉토 단면 Pit 노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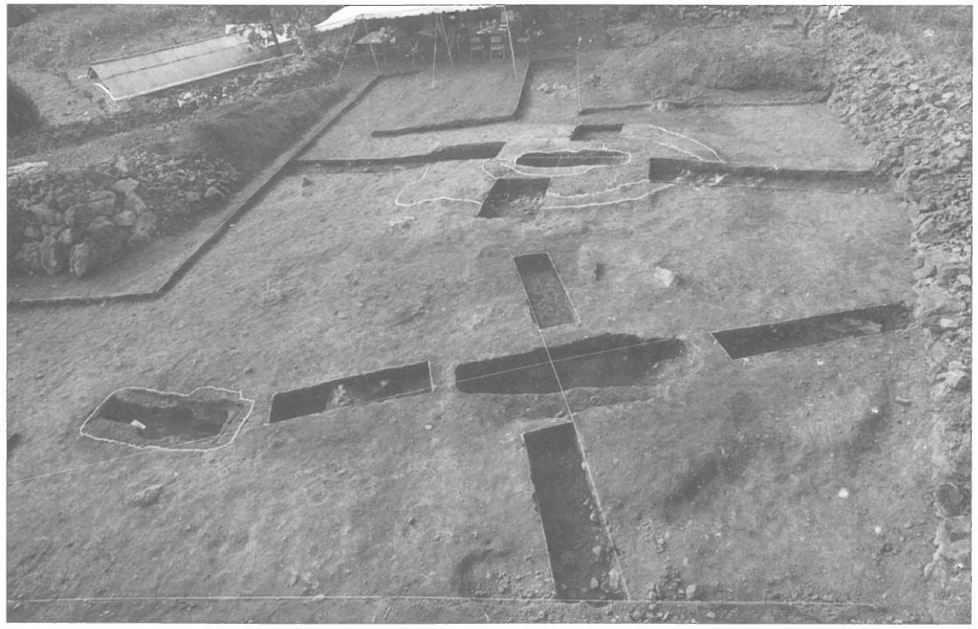


사진 39. B구역 유구 배치 상태



사진 40. B-2 · 3호분 유구 배치 상태



사진 41. B-2호분 노출 상태



사진 42. B-2호분 노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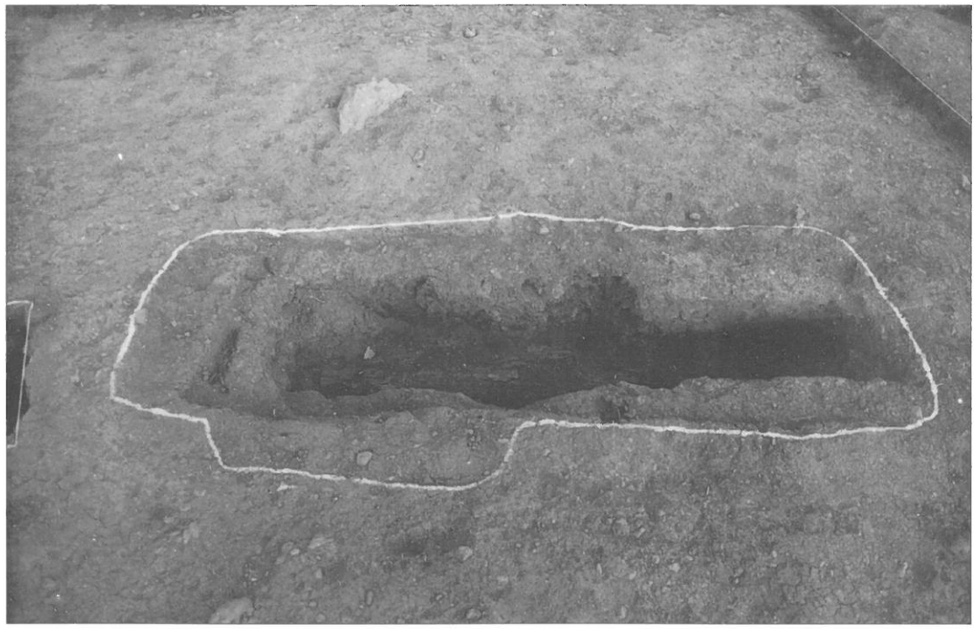


사진 43. B-3호분 노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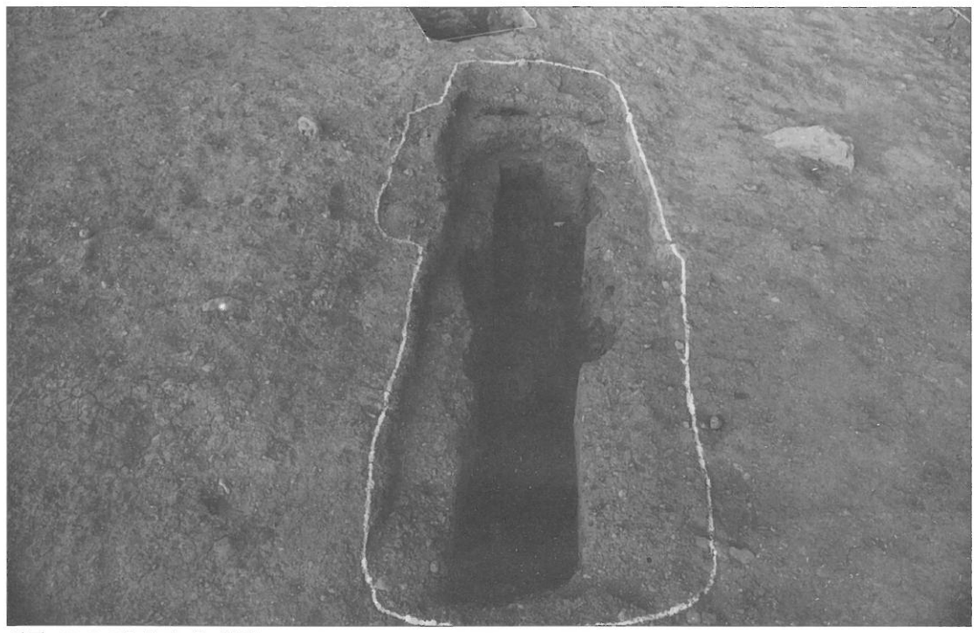


사진 44. B-3호분 노출 상태

Ⅵ. 출토 유물

발굴대상지 A, B구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개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도자기

1) 상감청자

A-1호분 성토층에서 출토되었다(도면 15, 사진 47). 기형을 파악할 수 없는 소편이다. 외면에 단이 형성되어 있다. 외면에는 연판문이 내면에는 구름문이 상감되어 있다. 태토는 비교적 양질이다. 長 3.8cm.

2) 백자대접

A-2호분 도굴갱에서 출토되었다(도면 15, 사진 47). 구연이 외반되고 동부에 다소 양감이 있는 대접편이다. 전체적인 색조는 회녹색을 띠며 유가 얇게 시유되어 있다. 長 8.7cm.

3) 청자대접

3401번지 지표에서 채집되었다(도면 15, 사진 47). 내면에 아주 작은 내저원각이 있고 기벽이 직선으로 성형된 대접편이다. 전면에 암색유를 시유하였고 굽접지면의 유는 깨끗이 닦아내었다. 내면 기벽하단에 내화토비짐 받침이 남아있다. 殘高 1.9cm.

4) 청자접시

3402번지 지표에서 채집되었다(도면 15, 사진 47). 굽둘레가 넓고 내면이 편평한 접시편이다. 내면 바닥에 花文이 양각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가는 빙렬이 있다. 굽내부에 작은 내화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殘高 0.7cm.

5) 백자종지

3402번지 석축부분에서 지표채집 되었다(도면 15, 사진 47). 평평한 내면바닥을 꺾여 동부로 올라가는 소형종지편이다. 내면에 「亭」銘이 새겨져 있다. 굽다리는 낮고 접지면이 고르게 성형되어 있다. 殘高 2.5cm.

6) 백자대접

B-1호분 봉토 상면에서 출토되었다(도면 15, 사진 47). 구연이 외반되고 동부에 다소 양감이 있는 대접편이다. 전체적인 색조는 회녹색을 띠며 유가 얇게 시유되어 있다. 長 8.7cm.

7) 백자대접

B-2호분 상부 부식토층에서 출토되었다(도면 15, 사진 47). 바닥의 일부분만 남아있는 소편이다. 내면에는 태토비짐을, 굽접지면에는 가는 모래와 내화토를 받쳐 번조하였다. 殘高 1.7cm.

8) 백자대접

A-1호분 북서편에서 지표채집 되었다(도면 15, 사진 47). 굽둘레 정도의 내저원각이 있고 그릇하부에 다소 양감이 있는 대접편이다. 굽은 1.2cm가량으로 단정하게 성형되어 있다. 내면에는 시유되지 않았으며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殘高 5.0cm.

9) 분청병

3402번지 B구역에서 지표채집 되었다(도면 15, 사진 47). 내면에 뚜렷한 물레자국이 있는 병의 저부편이다. 전면에 백토분장한 흔적이 있으나, 표면에 산화가 심하고 기공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 굽다리는 높고 외반되어 있다. 殘高 2.9cm.

10) 백자대접

B구역에서 지표채집 되었다(도면 15, 사진 47). 내저원각이 있으며 굽은 단정하고 내경되게 성형되었다. 내면에는 태토비짐을, 굽지면에는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는 회청색으로 양질이다. 殘高 3.1cm.

2. 무덤 관련석재

1) 童子石(도면 16, 사진 16・48)

童子石은 무덤 앞의 좌우에 세워지는 석상으로, 그 크기는 28×19×69cm이다. 간략화된 몸체와 둥그스름한 얼굴로 보아 조선중기 이후의 것으로 보인다. 동자석은 무덤을 지키는 지신(地神)으로, 피장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동자석은 머리부분과 몸체가 따로 떨어져 확인되었다. 몸체부분은 A-10호분 뒷편 석축부분에서, 머리

부분은 B구역 석축부분에서 확인되었다.

2) 碑 座

B구역 3402번지 밭경계 축담 틈새에서 확인되었다(도면 17, 사진 49). 모두 2기가 확인되었는데, 제주 현무암제이다. 비좌(1)은 반파되어 있으며 비신이 들어가는 홈부분이 비교적 직각으로 다듬어 졌다. 비좌의 크기는 長 55cm, 短 35cm, 厚 30cm이다. 중간홈의 크기는 長 41cm, 短 16cm, 깊이 9cm이다(도면 17-1, 사진 49-1). 비좌(2)는 거의 완전한 상태이며 上挾下廣식으로 밑면이 윗면보다 넓어 안정감을 준다.비좌의 크기는 長 62cm, 短 35cm, 厚 27cm이며 중간홈의 크기는 長 35cm, 短 11cm, 厚 8cm이다(도면 17-2, 사진 49-2).

3) 床石

봉분 앞에 놓이는 넓다란 제단석이다. 모두 제주 현무암제로 상면이 잘 마감되어 있다. 2점이 확인되었다(도면 17, 사진 49). 상석(1)은 3402번지 밭 중앙 흑갈색부식토층 위에 놓인 채 확인되었다. 그 크기는 長 85cm, 短 65cm, 厚 18cm이다.(도면 17-3, 사진 49-3) 상석(2)는 3402번지 밭 서북편 모서리 부분에서 확인되었다. 그 크기는 長 86cm, 短 60cm, 厚14cm이다(도면 17-4, 사진 51-4).

4) 石材

모두 3402번지(B 구역) 주변 석축부분에서 확인되었다. 무덤시설과 관련된 석재로 파악된다. 각 크기와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도면 18, 사진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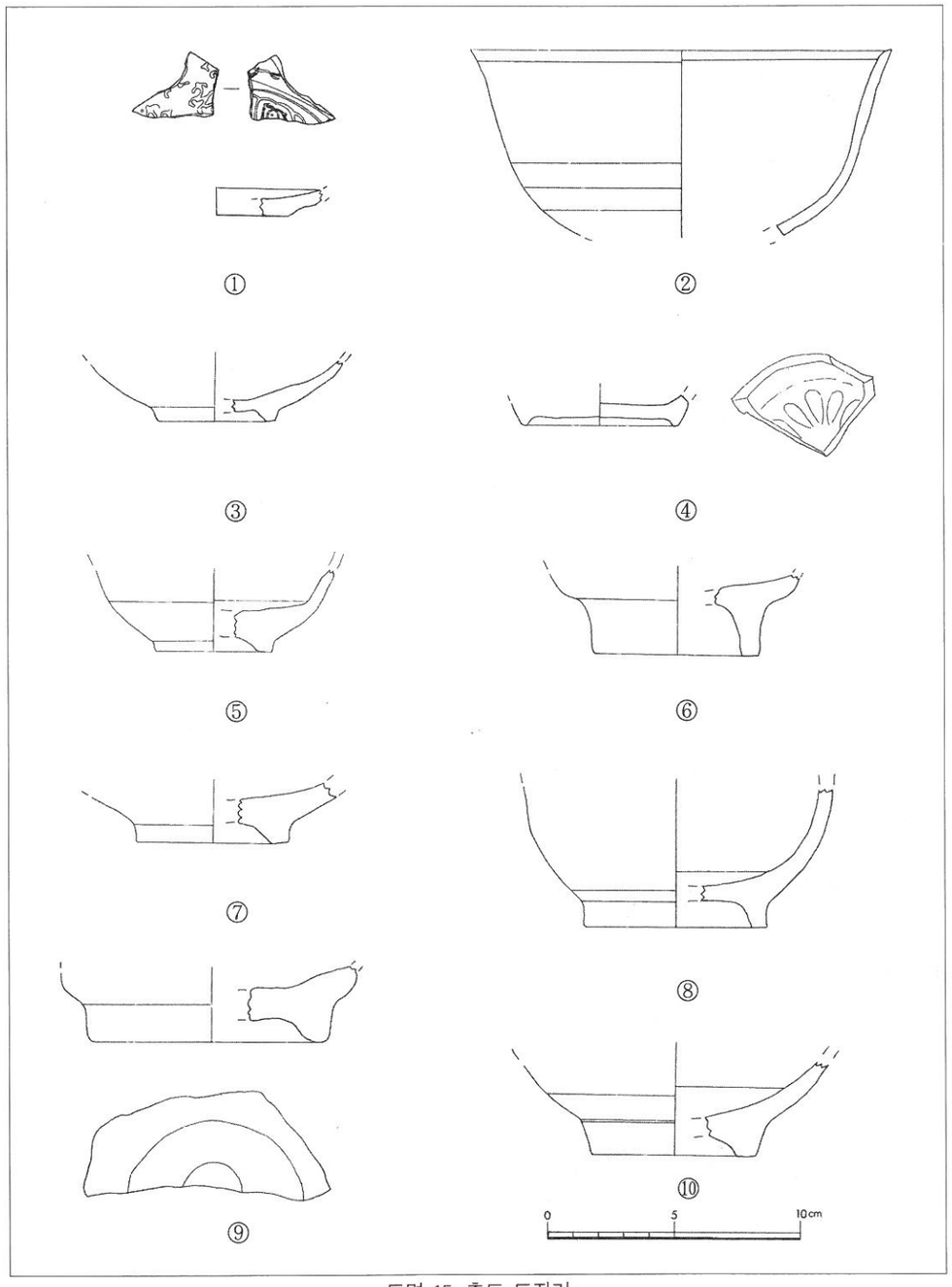
도 면	도 판	크 기 (長x短x厚)	내 용
18-1	50-1	43×38×15	현무암제・석곽사용석재
18-2	50-2	48×34×18	〃
18-3	50-3	43×34×16	〃
18-4	50-4	38×32×14	〃
18-5	50-5	30×18×15	현무암제・비석관련석재
18-6	50-6	28×25×19	〃
18-7	50-7	28×20×1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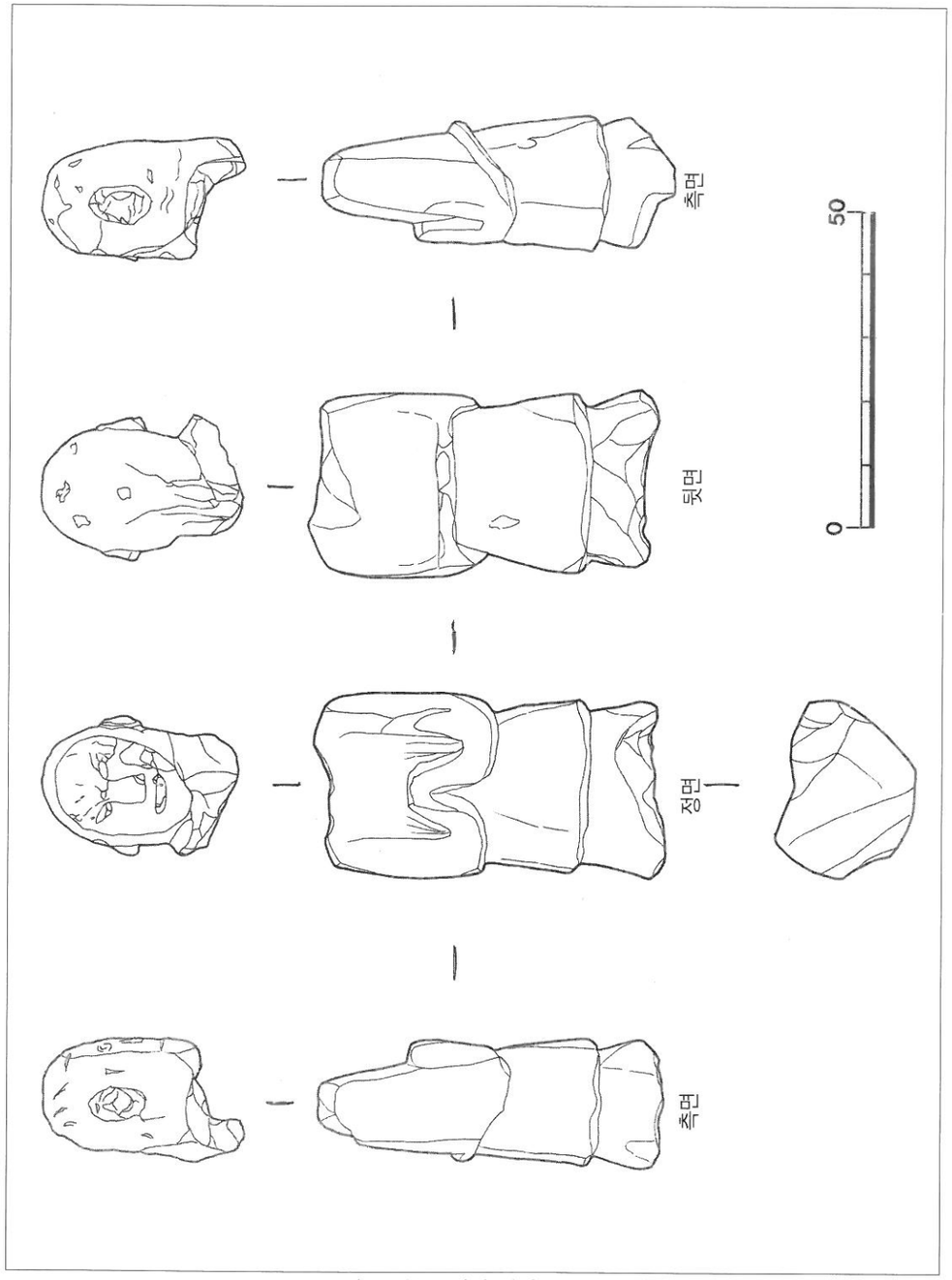
사진 45. 유적 주변 판석재 노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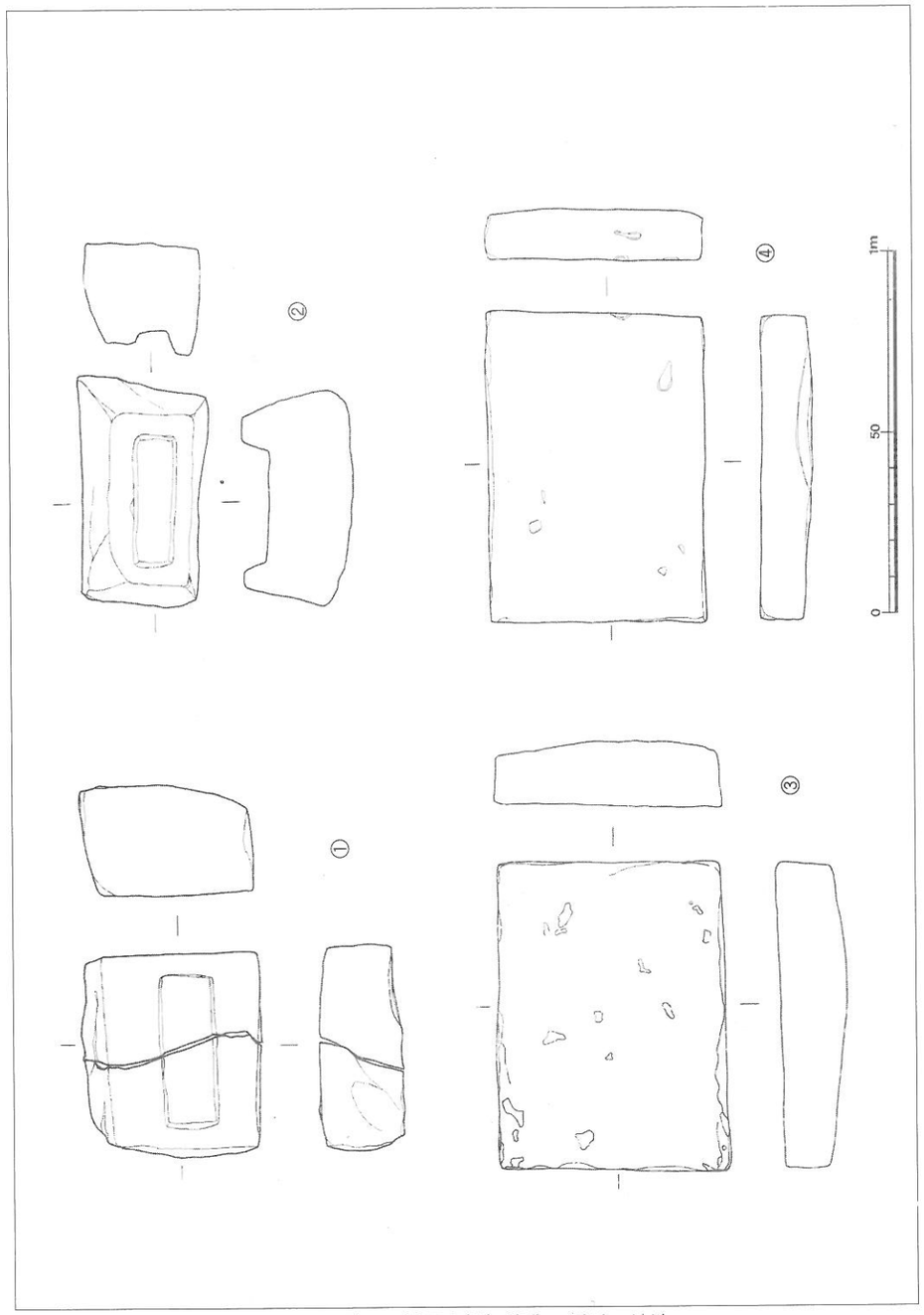
사진 46. 주변 수습 분묘 관련 석재 일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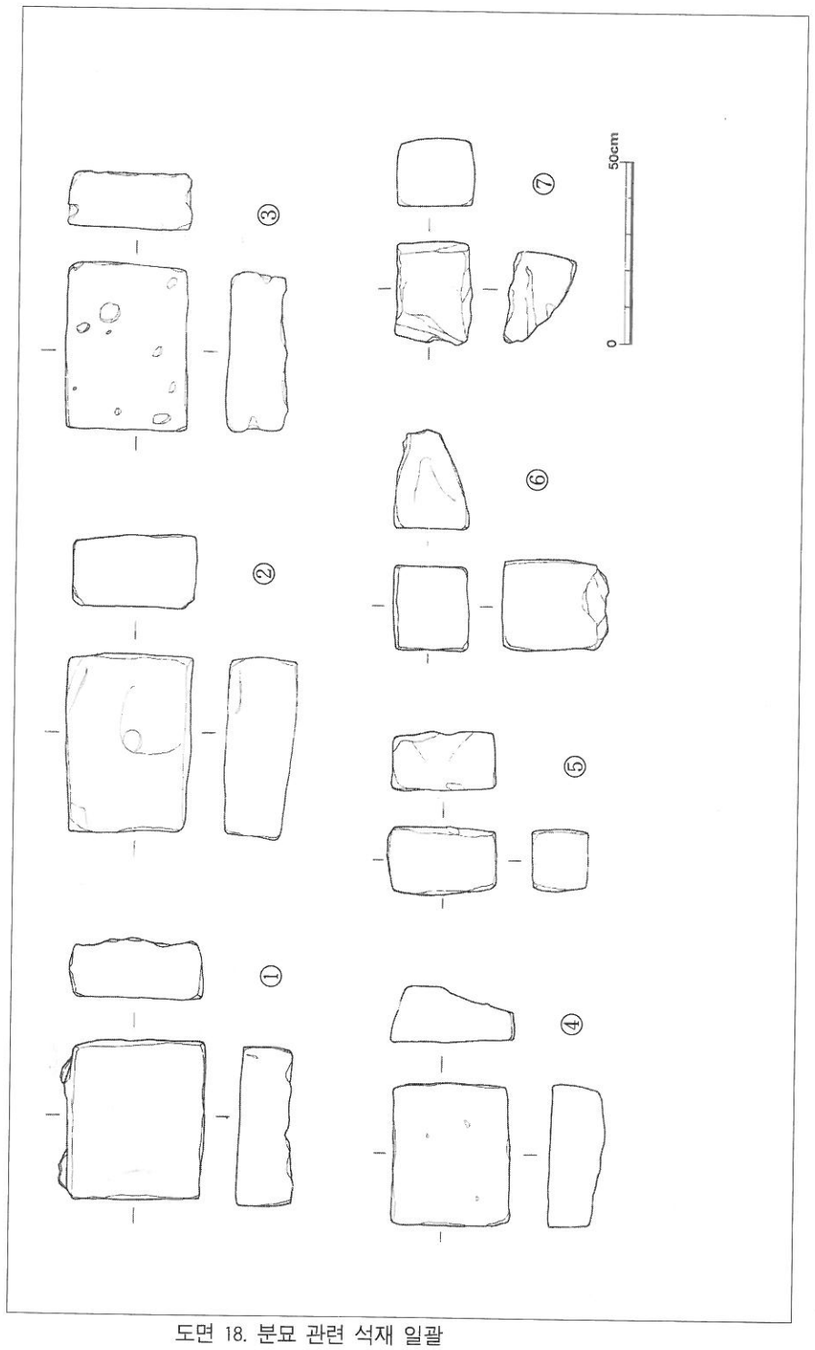
도면 15. 출토 도자기



도면 16. 분묘 관련 석재 - 동자석



도면 17. 분묘 관련 석재 - 비좌 · 상석



도면 18. 분묘 관련 석재 일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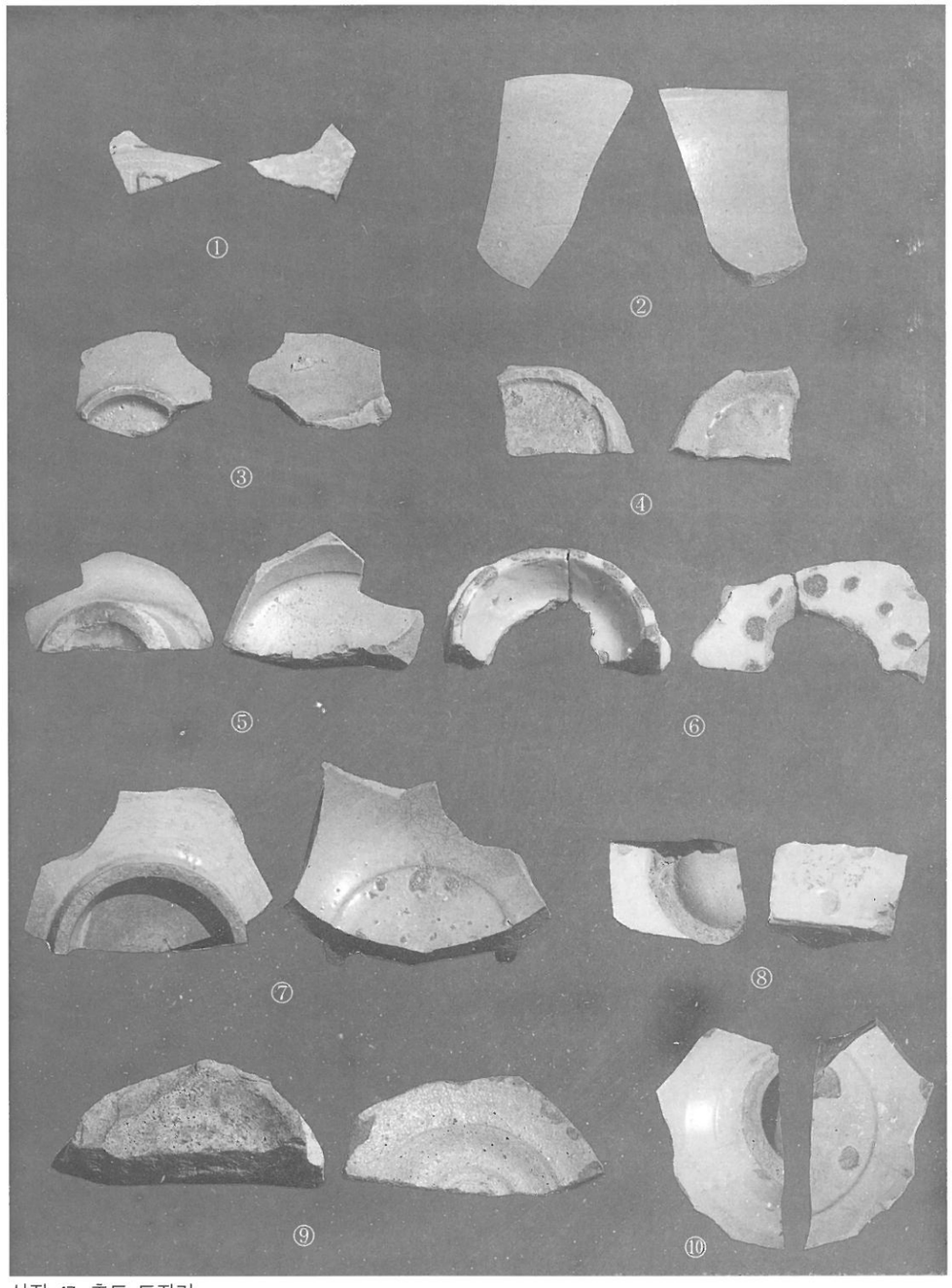


사진 47. 출토 도자기



사진 48. 분묘 관련 석재 - 동자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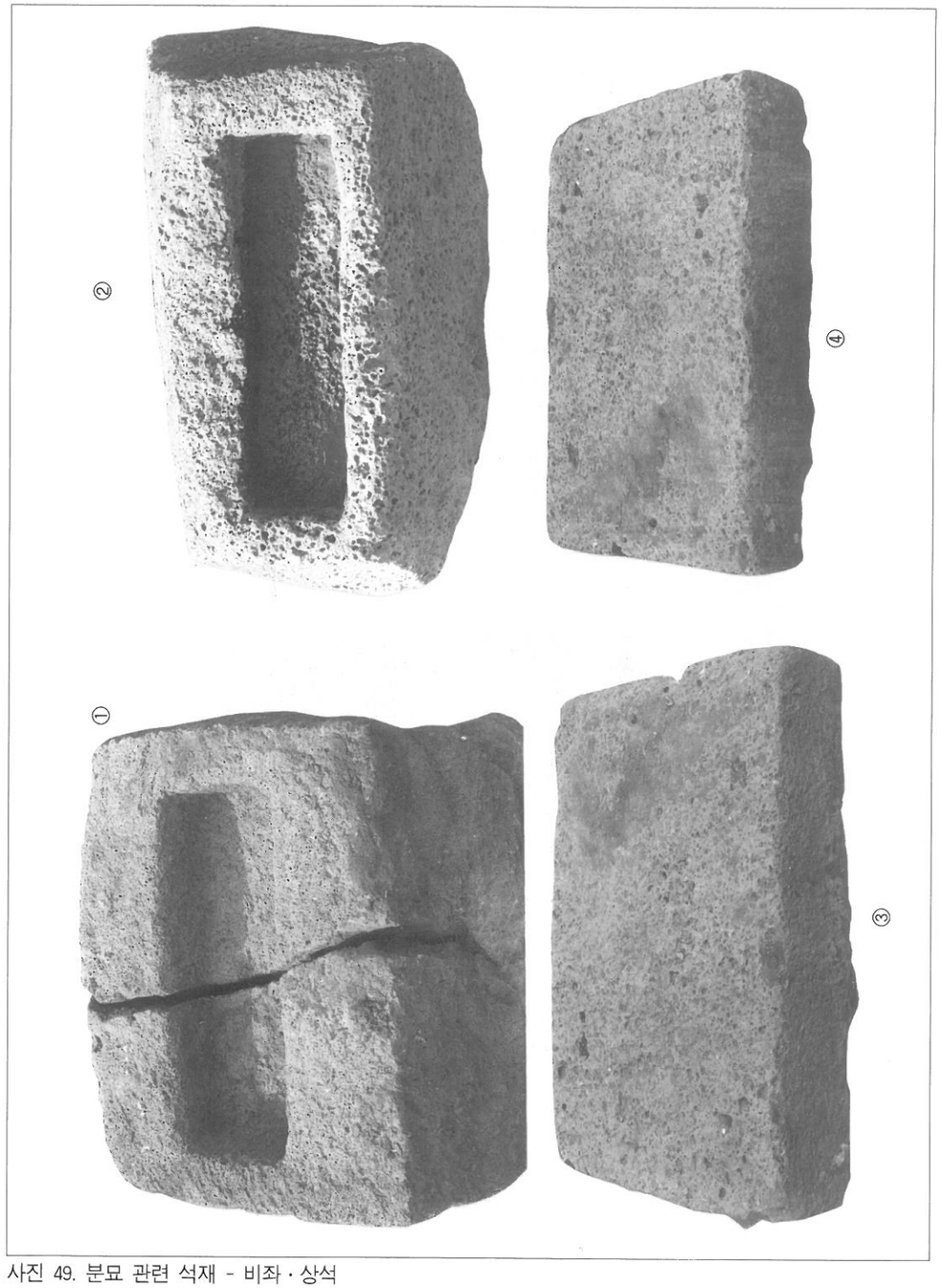


사진 49. 분묘 관련 석재 - 비좌 · 상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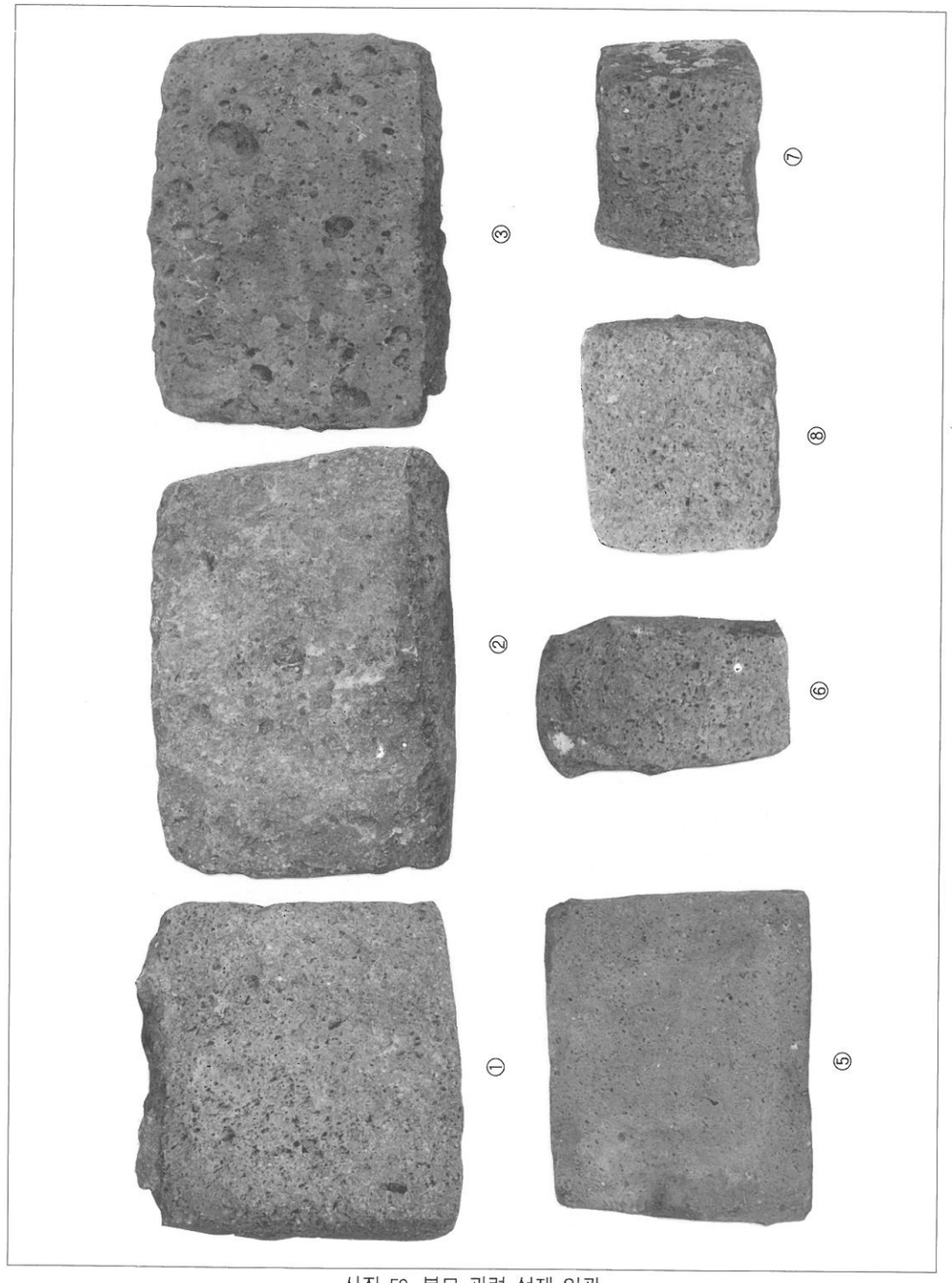


사진 50. 분묘 관련 석재 일괄

Ⅶ. 고 찰

이번 능동산 일대 2필지 300여평의 조사를 통해 조선 초기와 중기 이후에 형성된 5기의 분묘를 확인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유 구	구조형식	장축방향	遺構(長＼幅＼高)	木 棺	출 토 유 물	비 고
A-1호분	석곽묘	N 5°W	162×40×95	?	백자대접편 1점	조선초기
A-2호분	석곽묘	N 20°W	187×25×60	?	백자편2, 청자편1점	〃
B-1호분	토광묘	N 3°E	208×80×60	有	백자편1, 분청편1점	조선중기 이후
B-2호분	토광묘	N 5°E	240×62×48	有	백자편2점	〃
B-2호분	토광묘	정 남 북	160×30×25	有	백자편2점	조선말기

특히 A구역의 쌍분은 분묘의 입지가 자연적으로 높게 형성된 능선 정상에 묘역을 조성함으로써 외관상 거대한 봉토로 인식되도록 하였다. 이는 필경 풍수지리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었다는 반증이다.

분묘의 축조방법에 있어 주목되는 점은 원래 한 단 낮은 면을 2m 이상 점토층으로 성토하여 분묘 구역을 단(壇)형식으로 조성하였고 대형 할석을 이용하여 방형으로 곽을 돌렸으며, 그 안에 깊게 묻는 심장법(深葬法)[2]을 택했다. 벽석의 처리는 2단을 기본으로 하여 높은 곳은 5단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축조방식이 비교적 정교하다[3].

해당 분묘에서는 A-1호분에서 초기백자대접편이, A-2호분의 봉토에서는 흑상감청자편이 출토되어[4], 적어도 그 축조시기가 조선초기에 해당하는 시기임을 가늠할 수 있다.

따라서 경사진 지형을 일정 높이의 점토로 성토하여 방형의 곽을 만들고 시신을 깊게

2) 김인호, 1995, 「濟州島 古墳에 대한 一考察」, 『濟州島史硏究』 4, 氏에 의하면 제주도에서 최초의 매장 풍습은 『조선태종실록』에 나타난 '高得宗의 부친 묘소부터' 라고 하였다. 또한, 氏는 '上不起墳' 이라 하여 시체를 땅 속 깊이 매장하고, 지상에 봉분을 조성하지 않는 고분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3) 대구대학교 박물관, 1996, 「구미 인의·진평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문화유적 발굴(시굴)조사」, 현장지도위원회 자료.
이와 유사한 분묘의 발견 예는 경북 구미시 인의동 산 48번지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방형석곽토광묘와 유사하며, 실제로 동분묘(8호분·10호분)에서 청동합·숟가락·환옥 등이 출토되었다.

4) 제주대학교박물관, 1992 『法華寺址』, 제주대학교박물관조사보고 10, p.142, 도면 65-1, 사진 73-1.
이러한 흑상감청자는 同 寺址에서 국화문전접시 형태로 출토된 바 있다.

묻는 이러한 분묘의 축조 방법을 고려하고 분묘 조성 시 다수의 인력동원을 한 점을 감안한다면 일반 신분의 묘는 아니다. 또한 출토유물로 보아 그 축조 시기가 조선초기 이전인 점을 고려해 볼 때, 문헌과 족보에 전하는 고봉례(高鳳禮)의 무덤일 가능성이 짙다.

여기서 고봉례의 사적을 간략히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2〉와 같다.

일 시	사 적 내 용
고려 우왕 12년 7월	고려의 사신을 따라 개경에 올라감(볼모적 성격).
〃 〃 13년 4월	군기시 소윤의 관직 받음.
〃 창왕 즉위년 9월	제주 흑마 겸 안무별감에 임명됨.
조선 태조 3년 7월	말 100필 헌상, 쌀 100석 하사됨. 성주직 父 臣傑로부터 습작됨.
〃 태종 2년	왕자 문충세와 함께 성주·왕자직이 분에 넘친다하여 좌도지관, 우도지관으로 개칭
조선 태종 7년 3월	공조참의의 교지를 받음.
〃 〃 5년 8월	우군동지총제로 제수됨.
〃 〃 10년 5월	제주안무사가 되어 말 100필 진상.
〃 〃 11년 3월	총제직에서 치사, 쌀 20섬 하사됨.
〃 〃 11년 5월	喪配[文氏], 조정에서 쌀 30석, 종이 100권, 관곽 등 하사, 조문사 파견
〃 〃 〃 7월	쌀, 콩 30섬 하사됨.
〃 〃 〃 8월	좌도지관의 토관직, 장자 상온에게 세습.
〃 〃 〃 11월	구리화로 진상, 쌀 20섬 하사.
태종11년11월29일	별세, 조정에서 상장제구부의, 양전에서 사제, 종이 150권, 초 10자루, 쌀과 콩 40석, 관곽 하사.

Ⅷ. 맺 음 말

발굴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정리해 보면, 화북 거로마을 "능동산"에 위치한 쌍묘는 봉분의 구조·축조방법, 출토유물로 보아 적어도 15세기 이전에 다수의 인력 동원과 시간을 갖고 만들어진 분묘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高麗史》·《朝鮮王朝實錄》·《高氏世譜》등에 기록된 내용과 口傳으로 전하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본 능동산의 분묘는 고봉례 부부의 합장묘일 가능성이 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이 인지되는 한에서는, 이 묘역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비 계획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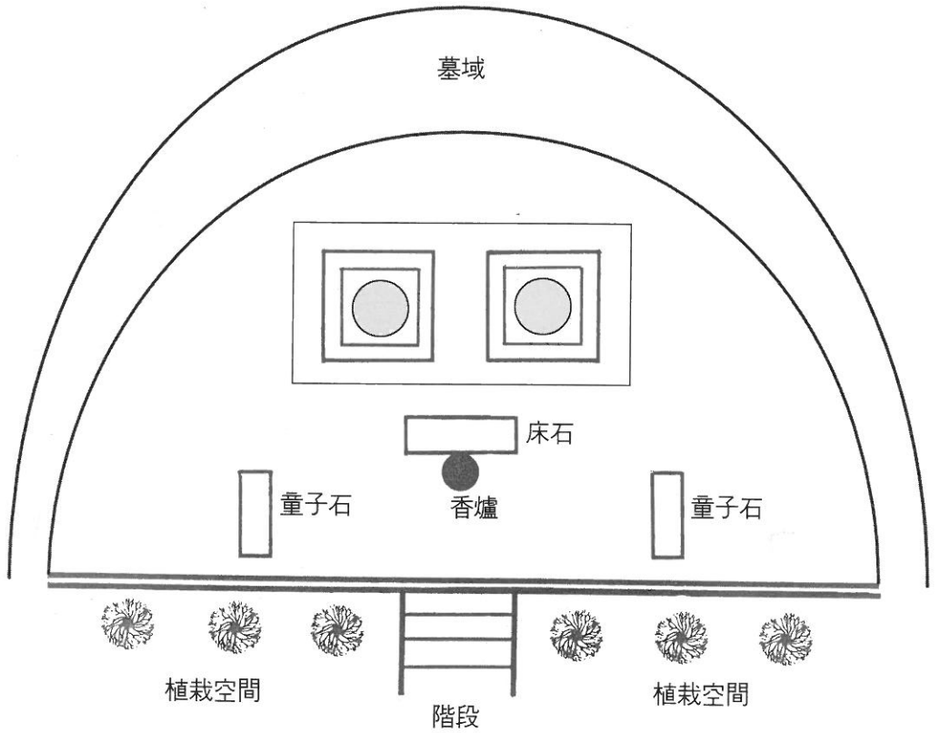
① 18세기 이후 만들어진 士大夫의 墓域[5]은 봉분 주변으로 곡장(曲墻)을 둘리고, 봉분 앞으로 상석(床石)과 香爐石, 양 옆으로 童子石이 마주 대하고 望柱가 세워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碑石은 死者의 입장에서 왼편에 두게 되어 있다.

② 그러나, 탐라의 마지막 성주인 고봉례의 逝去年度가 태조 11년(1411년)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이 시기에는 왕릉을 제외한 모든 묘역이 별다른 치장이 없었음[6]을 인식한다면 위와 같은 묘역 조성은 어렵다 할 것이다.

③ 따라서 토광 내부는 일정한 예를 올린 후, 방형의 석곽을 재정비하여 봉분 전체를 원래대로 복원하는 작업이 시급한 문제라 할 것이다. 그런 후에 비석과 床石, 동자석 등 무덤과 관련된 가장 보편적인 시설만을 두어 소박하게 재단장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 조사는 제주도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조선시대 분묘 발굴 조사이다. 따라서 이번에 발굴·조사된 내용들의 제문제, 분묘의 성격, 축조 방법, 축조 시기, 출토 유물 등은 제주 묘제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여겨진다.

5) 김원용 감수, 1994,『한국 미술문화의 이해』, 도서출판 예경, p.497.
6) 구리시, 1996,『구리시의 역사와 문화』, pp.223~231.



화북 거로마을 탐라성주 고봉례 부부묘역 조성도(案)

도서등록
No 0-917
1997.5.23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 조사보고 제17집

耽羅星主高鳳禮墓推定址

제주시 화북동 분묘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1997年 4月 25日 印刷
1997年 4月 30日 發行

發行：濟　　州　　市
編輯：濟州大學校博物館
印刷：世林原色印刷社
(☎ 21-8261～2)